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781호〉
2001년 3월 27일(화)

창간 1956년 4월 11일(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반병률 편집장 복수용 인쇄인 홍윤주 신문사 961-4151, 962-7128(F) 학생기자실 (서울 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대학별도

인원제한, 학년별 신청 변경순서 등 매년 수강신청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점들이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점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사진기행

하늘을 지붕삼아 사는 철거촌 '쪽촌마을' 사람들. 눈물겨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제기행

등록금과 대학사회는 정말 긴 인연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학내에 진동을 일으키는 등록금 문제. 하지만 목격할 수 없는 것은 어려운 우리네 삶인 것 같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해마다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생활문화

우리옷, 생활한복이 좋은 이유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봅니다.

학술별도

이제미의 사상의학에 따라 사용자의 체질, 건강상태를 진단해주는 획기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북한산'이라고…, '후진국'이라는 잘못된 이미지와는 달리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현장을 들여다 본다.

사회별도

부시 행정부 출현에 따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과연 통일운동의 방향은 어디로?

양 총학 등록금 '동결' 선포해

총장, 등록금 재논의 불가 입장 고수

용인 지난 26일(월) 학생회관 앞마당에서는 '무능한 학교규탄 및 학자요구안 완전관철을 위한 투쟁선포식'이 열렸다.

투쟁선포식은 약 13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 결과보고 △새내기 의견발표 △학사운영 미비를 위한 실천 투쟁의 결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철학 94)군은 "모든 학내 사안을 결정할 때는 3주체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제 또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학생처, 교무처 등 학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의 집기를 들어냈다. 또한 각 단대 로비에서는 '등록금 인상 거부하고 전면 수업거부를 묻는' 총투표가 진행됐다.

이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의 등록금투쟁이 지난 20일(화) 열린 공청회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학교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인해 2번 연기됐던 공청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등 학생측 대표 4명과 총장, 용인배움터 부총장 등 학교측 대표 4명이 발표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규철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등록금 재논의 △교음문제 △대학평위원회 의결 기구화 △불친절한 교직원 등 핵심 10대 요구안에 대한 질문과 일반 학우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총학생회장의 "등록금 인상율에 대해 다시 학생들과 논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기조처장은 "더 이상 등록금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논의하지 않겠다. 이제 그 등록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등록금 협상은 사실상 끝이났음을 강조했다. 이에 지난 22일(목) 비상확대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부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철학 94)군은 "공청회를 진행한 결과, 학교측은 학교발전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무성의한 답변으로 인해 공청회 자리는 여러 학자 문제들을 여론화시킬 수 있는 자리였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투자확대를 통한 등록금 의존율 인하 △등록금 책정위원회 건설 △전임교수 확충 등이 담긴 핵심 10대 요구안을 합의하고 각 단대별 요구안을 확정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동맹휴업 총투표 기간으로 결정했다.

'교육투쟁완전 승리를 위한 개강투쟁 선포식'이 지난 14일(수) 노천극장에서 개최됐다.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법대 학생회장 박종엽(99)군은 "학교측은 교육환경 개선에는 신경쓰지 않고 매년 등록금만 인상시키고 있다"며 학교측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다. 행사에서 △율동배우기 △본관신축 반대 규탄발언 △개강투쟁선포문 낭독으로 집회는 계속됐다. 총학생회장 이승주(사회·정치외교 97)군은 투쟁선포문을 낭독하면서 집회를 정리했다. 집회 후 장소를 이동한 학생들은 본관 앞에서 등록금 납부연기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등록금 납부연기자들을 대표해 서반아어과 부학생회장 박태준(00)군은 본관 옥상에 올라 "등록금 동결하여 민중생존권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복사한 천원권 지폐 수백장을 뿌렸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등록금 3회분할 납부'와 '등록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등록금 투쟁을 위해 각 단대별로는 등록금 실천단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등록금 3회 분할 납부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이창기(서양·독일어 99)군은 "근본적인 등록금 액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주 총학생회는 오는 27, 28일(수)양일간 '등록금 인상 거부·전면 수업거부에 대한' 총투표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틀 뒤인 30일(금)에는 투표결과에 따라 총궐기나 총휴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등록금 더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와 학교측과의 공청회가 지난 20일(화) 약 30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학우들이 참관해 등록금인상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측은 7% 인상된 등록금에 대해선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학교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사구조 개편 실무위원회 구성

학사구조개편실무위원회가 구성됐다.

실무위원회는 학사구조개편안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용인배움터 문화예술대학의 신설에 따른 후속과제 △자유전공계열 신설에 따른 후속 연구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학기 위한 실무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 22일(목) 실무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실무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의 활동범위 △주무 부서별 역할 △구체적 활동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를 통해 학사개편위원회는 교육부 정원조정 보고에 맞춰 오는 6월말까지 학사운영 방안 수립 및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실무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장 한형곤(이태리어)교수를 비롯해 용인배움터 교무처장 정병권교수, 박상미 (국제지역대학원)교수, 유재원 (언어학 전공)교수, 최영(신문방송학)교수, 김신영(교육학 담당)교수, 기획조정부처장 김진수씨, 예산과장 양영호씨, 서울배움터 교무과장 김경수씨, 용인배움터 교무과장 강영은씨, 입학과장 정일환씨이다.

지난 1월 1차안이 발표된 학사구조 개편안은 기존 통양학대 내에 '몽골학과' 설치 안이 어문학과내 '자유전공계열'로 변화해 확정안으로 발표됐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처장 한형곤교수는 "학생배출문제, 우수학생 유치문제 등에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30일(금) 본관신축 기공식 진행

오는 30일(금) 본관신축 기공식이 예정된 가운데 총학생회가 오는 29일(목) 총장과 면담을 신청해 논의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본관신축과 관련해 총학생회는 본관건립위원회를 통해 본관신축을 논의해왔지만 학교측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또한, 본관 2단계 공사저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본관시축 계약과 함께 위약시 30여억원의 손해가 난다는 여론은 총학생회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정책위원장 박연미(동양·마인어 97)양은 "이 날 30일 동맹휴업을 앞두고 우리의 명확한 요구안을 제출하고자 하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 기공식을 막을 수 있다는 의지로 이 투쟁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2차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일 11시 외국어연수원 앞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기공식은 △총장님 말씀 △이사장의 격려사 △동문회장 축사 △시삽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며 앞으로 한 달간 준설공사에 들어간다. 시공사인 (주)삼환은 미네르바동산과 학생회관 앞마당, 본관 앞마당까지 울타리를 쳐 공사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네르바에 위치해 있는 자치공간인 전시실과 종물패연합연습실은 이전될 계획이다.

델라웨어 대학과 복수교류협정 체결

우리학교는 오는 2학기부터 미국 델라웨어 대학과 복수학위수여를 실시한다.

이번 복수학위수여는 우리학교에서 2년 수학 후 델라웨어 대학에서 나머지 학사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두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 교류협정 참가하기 위해서는 85학점에 해당하는 전공, 제2전공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이 가운데 학점과 토플점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현재 델라웨어 대학과는 복수학위수여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조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델라웨어 대학은 미국 동부에 위치한 학교로 우리학교는 지난 89년부터 교류협정을 체결, 매년 7명 이상의 학생이 해외파견학생으로 그곳에서 수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협력처 대외협력주임 윤경욱씨는 "외국 대학의 학위를 지니게 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도 클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협력처 측은 점진적으로 교류학생을 늘려갈 계획이다.

대학부

알림

등록금 인상 저지,
교육재정 6% 확보를 위한 총투표
서울 - 27, 28일(수)
용인 26일(월)~30일(수)

외대학보

빈자리

안티조선은 1등 국민의 길

▲'할 말은 하는 신문', '신문, 그 이상의 신문'.....'1등 신문'

이상의 말들은 조선일보사가 자사의 최대상품을 칭하는 이름들이다. '할말은 한다'며 정론을 자처하고 있으며, '신문, 그 이상의 신문'은 잘 모르겠고...이 중 가장 공감가지 않은 대목은 자신들이 최고임을 자처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떳떳이 1등으로 스스로를 추켜세우는 데에는 판매량 1위라는 당당한 결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수의 선택을 받고 있으니 최선이라는 논리는 안티조선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반박논리로도 이용된다.

▲'좋은 신문이니 잘 팔린다'는 이러한 논리는 자유경쟁시장의 논리 그대로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 지금 신문시장은 그러하지 못하다. 신문시장의 70%이상을 조선, 중앙, 동아의 3대 일간지가 장악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쟁에서 으뜸인 것은 조선일보이다. 판촉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거대한 자본력을 투입해 지국을 건설하고, 수십 만원에 이르는 사은품을 구독자에게 안겨주는 이러한 판매행태 속에서 신문시장에도 자본력의 규모가 승패를 결정하는 정글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력과 구독률은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 가장 질 좋은 상품임을 보장하지는 않다. 정작 우리네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은 예쁘고 눈에 띄는 상품이다. 조선일보는 대중적 이미지가 좋은 문화계 인사들의 글로 문화면을 포장하면서 보수적인 논조를 윤색한다. 이것은 명절 때 과대포장으로 소비자들을 눈가림하는 명절선물과 다를 바가 없다. 질 좋은 상품을 가려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안티조선운동이다.

▲왜곡된 시장과 과대포장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일이란 쉬운 일은 아니다. 체제가 이끄는 관성과 물심이 부리는 인력에 세상을 바로 읽어내는 독자가 되는 일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안티조선의 전위부대인 불촉부대가 조선일보 불매운동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있는 육천군. 그곳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유지학(41)씨는 조선일보를 끊은 후 "운동에 적극 참여는 못하지만 구독을 중지한 것만으로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고 답했다. 안티조선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이며, 일등 국민이 되는 길이다.

편집장

서 울

27일 사회대학생대표자회의 열어

사회대학생대표자회의가 오늘 27일(화) 개최됐다.

이번 사학대회는 △총기조·총노선 토론 △사업계획논의 △3·30 총궐기와 계열제투쟁 토론 △회칙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사회대는 정·행계열제를 철폐시키기 위해 방학 중에 '계열제철폐 투쟁위원회'를 건설했다.

이와 관련 사회대 학생회장 엄정나(98)양은 "과제로의 복원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계열제 투쟁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범대 정기총회 개최

사범대 정기총회가 지난 20일(화) 대학원 소극장에서 열렸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결의대회 형태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새내기 노래 공연 등 문예공연 △총기조, 총노선 발제 △등록금 투쟁과 관련한 질의응답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 못한 의결안건 등은 사범대 학생대표자회의를 재소집해 논의한다. 이와 관련 사범대 문화부장 문윤희(한국어교육 99)양은 "정기총회가 성사되지 못해 아쉽지만 사범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얘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반 신입 실원 모집

행정고시반 '사민제'는 신입실원을 모집한다. 응시는 행정고시 지원자격이 되는 외대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험은 오는 31일(토) 10시 사회과학관 407호에서 치뤄진다. 1, 2학년 응시자는 영어(40문항, 50분)를, 3, 4학년응시자는 영어와 헌법(40문항, 90분)을 치른다.

단, 행정고시 1차 합격자에 한해서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10분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컴퓨터용 싸인펜을 지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실장 윤희웅(사회·정치외교 95)군은 "행시관련서적, 학원 강의테이프가 잘 비치돼 있고, 소그룹으로 나뉘어 스터디를 할 수 있어서 행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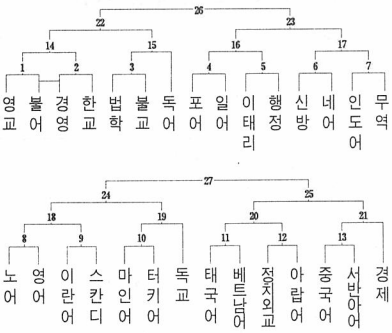
모의월드컵 다음달 5일까지 진행

외대모의월드컵이 26일(월)부터 4월 6일(금)까지 축구부 주최로 2주간 진행된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외대 모든 과가 참가해 축구실력과 단합된 모습을 겨룬다. 작년과 달리 이번 대회는 골키퍼 규정이 변경돼 승부차기 시 골키퍼는 팀원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됐다. 우승, 준우승을 비롯해 5개 부분에 걸쳐 시상한다. 한편, 월드컵 기간 중 서울배움터 축구부는 26일(월) 용인배움터 축구부(미정)와 오는 6일(금) 성균관대 아마 축구부와 초청경기를 갖는다.

이와 관련 축구부 주장 유병기(사회·행정 97)군은 "과대표로 참석하는 만큼 유니폼만큼은 챙겨 입고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19회 외대 월드컵 대진표



독일어과 과회장에 조화경(99)군 당선

조화경(99)군이 지난 21일(수) 독일어과 선거에서 재적인원 393명 중 167명이 투표한 가운데 160명이 찬성(반대 5, 무효 2)해 당선됐다.

'天上天下 YOU 我 獨 ZONE'이라는 기발한 가치로 선거에 출마한 조군은 △복학생방의 실용화 △소모임의 활성화 △알림판 마련 △학우들의 복지증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조군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독일어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어과회장 장유석(97)군 당선

장유석(97)군이 지난 15일(목) 열린 선거에서 재적인원 124명 중 83명이 투표해 100%가까운 찬성률을(무효 1) 보이며 베트남어과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장군은 △과환경개선 △소모임·총동문회 예술제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장군은 "공약이 공약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우리학교 김진홍 교수 포함된 동아투위, 민주화운동단체로 인정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이하 동아투위) 활동이 지난 19일(월)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우리학교 김진홍(신문방송) 교수가 그 동안의 맘에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동아투위란 80년 계엄에 반대해 민주화를 요구하다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모인 단체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공권력이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명예회복을 해주지 않았다.

당시 언론자유를 외치다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은 복직을 요구하며 언론 민주화 운동을 꾸준히 벌여왔으며, 조선투위와 함께 한겨레신문사 설립을 주도하였다.

이와 관련 김진홍 교수는 "희원 중 그나마 나는 교수로서, 활동을 하며 덜 어려움을 겪었다"며 "뒤늦게나마 민주화 운동으로의 인정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우리 동아리로 오세요"

'용인배움터 동아리 해오름식 및 새내기 맞이 한마당'이 지난 22일(목)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새내기를 가족으로 맞아 들이기 위해 분주한 여러 동아리들의 공연을 보며 이번 학기 풍성한 각 동아리들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위는 학생회관 앞 마당 바닥에 자신의 동아리 이름을 정성껏 그리는 모습이다.

사진부

용 인

1500-2 버스 증차

서울과 분당, 사당역을 경유하는 대원고속 1500-2번 버스가 지난 19일(월) 8대에서 12대로 4대 증차됐다.

이로 인해 배차간격이 기존의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대원고속 소장 김중식씨는 "이용이 많은 만큼 학생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줘 서로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자연대 새내기 노래 한마당 개최

자연대 학생회에서는 오는 27일(화) 자연대 강당에서 '새내기 노래 한마당'을 진행한다. 새내기들과 재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지난 97년부터 기획된 이 행사는 작년까지는 자연대 해오름식 부대 행사로 열렸으나 올해부터 행사의 집중성을 고려, 따로 배치했다.

이에 대해 자연대 학생회장 이정헌(화학 96)군은 "행사를 예년보다 크게 기획한 만큼 노래에 재능있는 많은 새내기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각 단대 해오름식 및 정기총회

△공대

공대 정기학생총회 및 해오름식이 지난 23일(금)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800 공대인이 왕산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열린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눠 1부는 정기학생총회로 △방중사업 보고 △학자사업 보고 및 건의사항 △2001학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인준, 2부 해오름식은 △율동패 공연 및 따라 배우기 △단대 구호 배우기 △고사 등을 진행했다.

또한 등록금 인상반대, 교통, 식당문제, 학사행정 등을 담은 '2001년 왕산학자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공대 학생회장 이준심(디지털정보공학 96)군은 "우리 공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며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양학대

동양학대는 지난 20일(화) 소운동장에서 학생정기 총회 및 해오름식을 개최했다.

해오름식은 응원단, 동대밴드 공연, 아랍어과 학회 공연으로, 정기학생총회에서는 △방중활동 보고 △1년 사업계획 보고 △등록금 투쟁의의 연설 및 결의 발언 △공청회 보고 △동대밴드 '딜리셔스시이코' 인준 등이 진행됐다.

이와 관련 박종호(아프리카어 96) 동대 학생회장은 "작년 한해를 돌아보면 동대장이 없어 이런 큰 자리가 부족해 아쉬웠다"며 "한자리에 모여준 동대인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연대

'왕산에서의 새로운 출발, 자연대가 만든다'는 기치의 자연대 해오름식이 지난 23일(금) 자연과학관 앞마당에서 열렸다

국가보안법 철폐,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반대 등 현정세 발언을 시작으로 △방중사업보고 △연사업계획 보고 △과방 꾸미기 대회 발표 및 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해오름식에는 총 재적인원 972명중 300여명이 참여,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열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 중 자연대 전 과학생회실을 대상으로 한 '과방 꾸미기 대회' 시상식에서는 화학과가 1등, 수학·환경학과가 각각 2,3등을 차지했다.

행사에 대해 자연대 학생회장 이정헌(화학 96)군은 "1년동안 학생들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열린 학생회, 단합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되는 자연대'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동유럽대

지난 22일(목) 늦은 5시 어문관 식당에서는 동유럽학대 정기학생총회 및 해오름식이 열렸다. 고사를 시작으로 △방중생활보고 △결산안보고 △1년 사업보고 △토의 및 결의 안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청와대와 교육부의 고발, 불투명한 예·결산안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요청이 토의안건으로 진행되었고, 현재 동유럽대 학생 4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율동패 푸름이, 해무리, 서풍연, 외비기디, 로그아웃의 공연으로 해오름식이 열렸다.

한편 등록금투쟁 배 동유럽대 체전이 지난 22일(목)을 시작으로 28일(수)까지 열린다. 농구(남자), 발야구(여자) 두 종목으로 하루에 한 경기씩 동유럽대 6개과가 전체 참여한다.

이와 관련 동유럽대 학생회장 정기수(체코어 97)군은 "일년에 한 번 열리는 새내기 중심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분기별로 각각의 시안을 갖고 예비역과 재학생, 새내기 모두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를 진행할 것이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인문대

인문대 정기 총회 및 해오름식이 지난 23일(금) 인문대 앞마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총회는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록금 투쟁, 학자 요구안, 일학년 대표자 협의회 건설 등이 진행되었으며, 해오름식은 △손말사랑회 스로그아웃 △푸름이 △애문(인문대 율동패). 의 공연과 대동놀이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인문대 정책부장 최호녕(철학 99)군은 "예전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 인문대 재도약의 희망을 본 것 같다"고 전했다.

창업보육센터 개소식 열려

지난 21일(수) 자연대 대강당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개소식이 열렸다. 총장, 이사장, 경기도지사, 용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격려사, 축사 등의 순서로 내부시찰 및 리셉션도 함께 진행됐다.

지식기반,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작년 5월 설립되기 시작한 이 센터는 보육실, 공동작업실, 회의실, 자료실 등을 보유한 독립건물로 건축되었다.

이와 관련 소장 김성복교수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며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배움터

구분 / 요일	학생					
	아침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26일)	생선조림백반(₩1,000)	콩나물비빔밥(₩1,200)	소고기버섯덮밥(₩1,500)	오징어볶음덮밥(₩1,300)	짜장밥(₩1,200)	짜장면(₩1,000)
화(27일)	소고기국밥(₩1,500)	오징어숙회비빔밥(₩1,300)	오무라이스(₩1,500)	부대찌개(₩1,500)	돈육볶음덮밥(₩1,400)	칼국수(₩1,000)
수(28일)	두부조림백반(₩1,000)	불고기덮밥(₩1,500)	해물잔칫상(₩1,500)	닭개장(₩1,400)	순두부찌개(₩1,300)	튀면(₩1,000)
목(29일)	대구매운탕(₩1,400)	김치볶음덮밥(₩1,400)	함박스텍(₩1,600)	육개장(₩1,500)	얼갈이콩탕(₩1,500)	짜장면(₩1,000)
금(30일)	물오징어찌개(₩1,300)	삼주불고기비빔밥(₩1,500)	비프커리라이스(₩1,400)	두부된장찌개(₩1,300)	참치김치찌개(₩1,400)	스파게티(₩1,200)

용인배움터

구분 / 요일	어문관			후복관		
	중식 1	중식2	분식	조·중식	석식	볶음밥
월(26일)	제육볶음덮밥(₩1,500)	사리곰탕(₩1,800)	가다국수(₩1,200)	닭근무뼈이묵국(₩1,500)	호박된장국(₩1,500)	쇠고기김치볶음밥(₩1,500)
화(27일)	오징어덮밥(₩1,500)	닭곰탕(₩1,800)	비빔냉면(₩1,200)	두부계란국(₩1,500)	오징어배춘국(₩1,500)	해그스크림볶음밥(₩1,500)
수(28일)	카레라이스(₩1,500)	참치회덮밥(₩1,800)	칼국수(₩1,200)	배추된장국(₩1,500)	북어미역국(₩1,500)	맛살커틀볶음밥(₩1,500)
목(29일)	참치김치찌개(₩1,500)	춘천닭갈비정식(₩1,800)	잔치국수(₩1,200)	감자수제비국(₩1,500)	행두부국(₩1,500)	오색볶음밥(₩1,500)
금(30일)	오징어볶음덮밥(₩1,500)	김치불고기비빔밥(₩1,800)	짜장면(₩1,200)	닭근콩나물국(₩1,500)	유자차된장국(₩1,500)	쇠고기김치볶음밥(₩1,500)

이 사람

"외국 생활은 제게 자신감과 넓어진 시야를 주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The University of Delaware) 교환학생으로 가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구수본(서양·불어 98)양을 만나

작년 7월 달에 델라웨어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미국 땅을 밟은 구수본양. 작년 12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녀를 뒤따른 것은 델라웨어 대학교 총장의 감사 편지였다. 조규철 총장 앞으로 전달된 이 편지는 '우수한 학생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녀가 어떤 학생이었길래 총장이 편지를 쓸 정도였을까.

그녀는 "총장님이 편지를 썼다고요? 전혀 몰랐는데요"라고 어리둥절해 하며 "성적이 조금 좋다고 편지까지 썼다는 게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녀의 성적은 '조금' 이상이다. 전 과목 A+를 받은 것이다. 영어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외국 체류 경험도 없던 그녀가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다. '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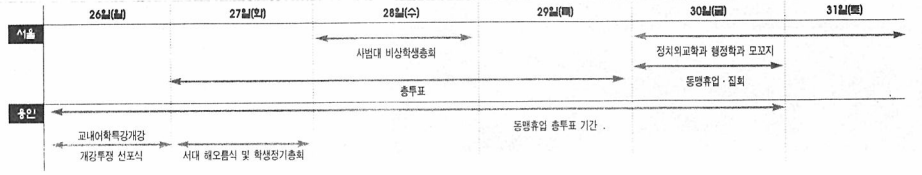
"처음엔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부모님이 반강제로 떠밀어서 간거나 마찬가지죠" 라며 그녀는 멋쩍게 말했다. 단순한 언어 장벽 외에도 다른 문화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녀가 '떠밀려서' 미국에 도착했을 땐 여름 방학 기간이었다. 7-8월에 외국인을 위한 강의인 EIL 코스를 듣다가 9월에 정규 학기를 맞이했다고 한다. 적응 기간이 겨우 두 달 남짓밖엔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교과과정을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은 주로 교재를 바탕으로 출제돼요. 수업 시간에 이해하지 못한 것은 혼자서라도 교재를 보면서 공부했죠. 수업이 끝나면 거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요"라고 그녀는 전했다. 여기엔 미국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여건이 작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게 그녀의 부연 설명이다. 노래방을 한 번 가려면 옆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주까지 차로 40분을 가야 하는 등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가는 게 보통이었다고 한다.

미국에서의 대학 생활 중 불만이었던 점을 물었다. 그녀가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단연 '등록금' 문제였다. "현지 학교에 등록금을 냈는데 우리 나라의 약 3배(6300달러, 한화 약 650만원)정도이더군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자기 학교로 와주니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총장이 편지를 쓴 것도 이런 점에 대한 외교적 언사가 아니었을까요" 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많은 난관을 뚫어온 그녀도 취업난에 대해선 "저 같은 어문계열 전공자들은 대학원까지 가서 학위를 따더라도 큰 도움이 안되죠. 여성들은 특히 더 힘들고요"라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당당히 서게 될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주간일정표



영어학부 교수 임용문제

교수 확충 가로막는 '다툼', 공개적으로 해소해야

영어학부 학생회가 '교수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수) 본관앞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학생회장 김승섭(99)군은 "등록금이 인상돼도 교수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부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수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총장실 앞에 집결해 소모임 회장, 학회장 들의 발언을 시작으로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출타중인 관계로 제안서만을 제출했다.

학생들이 나서게 된 이유는 99년 이래로 9명의 영어학부 교수가 정년퇴임했지만, 그 이후 단 한명도 충원되지 않은 데 있다. 실제로 내년부터 학부제로 처음 선발한 00학번들의 학과가 결정되지만 통·번역을 담당할 교수는 현재 단 한명도 없다.

이렇듯 몇 년간 영어학부가 교수 채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임용과정 중 계속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영문학분야 심사에서 지원자 중 1차 기초심사에서 1위로 뽑힌 A후보는 학과심사를 거친 후에는 순위가 뒤바뀌어 또다른 임용대상자인 B후보가 1순위로 인사위원회에 보고됐다. 이 과정을 놓고 인사위원회와 학부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공심사에 참관인으로 참가했던 채희락(언어학) 교수는 "A후보는 제출 논문을 평가하는 기초심사에서 B후보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도 전공심사후 순위가 뒤바뀐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공심사 기준이 바뀐 것에도 의문을 품었다. 기존 교수임용세칙은 '최근 4년 이내의 논문을 심사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영어학부는 학부회의를 통해 '미발표 학위논문도 심사 가능토록 한다'라고 변경했다. 이러한 기준의 변화로 계재예정 논문과 오래전에 발표된 논문편수가 많은 B후보가 이득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사실, B후보는 지난 99년 2학기 교수임용 심사당시에도 지원했던 인물로 일부교수들이 지속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 당시 B후보는 과 심사에서 1순위로 인사위원회에 제청됐지만 이후 외부교수와 우리학교 외국인 교수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인사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후보가 총장에게 제청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어학과(99년 당시는 학과제였음)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최지훈 기자

올해 임용과정에서도 학과 재심사를 거쳐 B후보가 인사위원회에 1순위로 보고됐지만, 인사위원회는 총장에게 A후보를 제청했다. 하지만, 총장은 △교수임용시 학과 재심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점 △학과 교수들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A후보를 이사회에 재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견해도 있다. 그 당시 영어학부장이었던 신명섭 교수는 "총장이 결정을 내렸어야 옳았다"며 "인사위원회가 후보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때부터 계속된 교수임용을 둘러싼 공방을 두고 일부교수들은 '특정대학 출신간 알력다툼이다'라고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은근한 '파벌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99년 인사위원회 청문회를 준비했던 최기준씨는 "교수임용과정의 투명성은 최대한 공개적으로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다"며 "교수임용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강신청 불만있다

"수강 인원제한 변화 필요"

개강 후 한달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학생들 사이에서 수강신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수강신청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인원제한 △수강신청과 변경의 순서 △시스템 구축의 부족함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인원제한제는 효율적인 수업운영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아무 대안없이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원제한은 필요하지만 각 학년 학생수에 거의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비 인기과목을 폐지하고라도 학생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수업을 더 보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한 후 인원제한을 해야 한다"고 최주한(서양·영어 96)군은 말했다. 인기가 많은 과목은 인원제한을 하되, 강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공 과목 또한 비슷한 사정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용인배움터 김진섭 교무주임은 "학생들의 건의에 따라 인원배정은 각 학과와 논의해 학과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며 "인기과목의 경우 강의수를 늘리는 문제는 더 상의해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수강신청은 저학년이, 변경은 고학년이 먼저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우리학교의 교양과목 신청은 학년구분이 있긴 하지만 수강신청은 학년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저학년들이 먼저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고학번 학생들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윤연화(서유럽·영어 98)양은 "실용 외국어처럼 꼭 이수를 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과목이라도 인원이 다 차있는 경우가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용인배움터 교무주임 김진섭씨는 "4학년에 권의를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생각이었다"고만 말해 저학년이 먼저 수강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음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에 따른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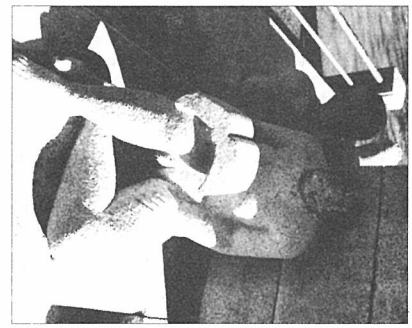
이에 대해 진다리(서양·스칸디나비아어 96)군은 "접속 불안정, 반복적인 오류 등으로 시간이 많이 낭비됐다"며 "학교 재정실정과 과학적 수준에 맞는 온라인 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수강신청 가능시간인 아침 8시보다 훨씬 늦은 9시가 넘어서야 정상적인 시스템이 실행됐다"는 여소영(서유럽·불어 00)양의 사례에서 시스템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반면 이에 대해 전산과장 박원욱씨는 "수강신청을 먼저 하려고 한까번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 서버에 무리가 가 잠시동안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전산상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며 "먼저 수강신청시 인원제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수강신청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3일(금) 교학과, 교무처, 전산소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용인배움터 교무주임 김진섭씨는 "전산서버의 새로운 구축, 인원제한 등을 논의했다"며 "최종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인원제한, 시간 낭비 등 매년 수강신청 때마다 나오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효율적인 대안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seoulwater63@hanmail.net



"어떻게 책을 읽지?"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앞 책 읽는 조형물의 머리부분이 없어진 채로 방치되고 있다. 입학식때 학교를 둘러본 학부모가 지난 17일 학교 홈페이지 '의대발전을 위한 제언'에 청상복구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사설

정주영 회장이 남긴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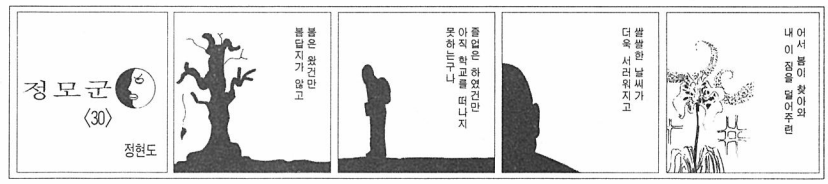
그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교훈 삼아야

지난 3월 21일 정주영회장이 8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정씨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재벌의 창업자로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의 한 사람이다. 정주영씨는 또한 독재정권과의 정경유착, 독선적인 제왕적 경영방식, 노동운동 탄압 등과 같은 한국경제의 어두운 측면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인생관과 행동방식은 경제발전의 파트너이기도 한 박정희대통령을 많이 닮았지만, 그의 삶은 다른 경제인들과 달리 특별한 주목을 끈다. 그것은 한국현대사에 남겨진 그의 인생궤적이 경제분야에만 머물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히 말년에 그는 경제의 경계선을 과감히 넘나들며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88올림픽을 유치하고, 대통령에 출마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얼마전인 98년 6월에는 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넘어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기까지 했던 것이다. 많은 이들이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면서도 정주영씨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같다. 어쨌거나 그가 말년에 긴장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망소식을 전하는 언론이 이러한 우호적 평가의 중심에 서 있는 것같다. 언론개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신문언론들이 정씨의 사망소식 보도에 접하고 약속이나 한듯이 휴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언론이 얼마전 세상을 떠난 서정주 시인이나 김기춘 화백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박정희기념관 문제에서 명백히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이다. 북한의 김정일위원장이 조문단을 파견한 일 역시 주목할만하다.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 죽은 사람에게 조의를 표하는 우리의 장례문화의 영향으로 정씨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남북한 당국자는 물론 정치이념을 달리하는 정치세력과 언론이 일치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 것은 분단이후 한국현대사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정주영씨의 파란만장한 일생은 해방과 미군점령, 동족상잔의 한국전쟁과 자유당독재정권, 짧은 기간의 민주당 정권과 5.16쿠데타, 장기적인 군사독재정권, 그리고 최근에 물꼬가 트인 남북화해에 이기까지 그야말로 격동의 한국현대사와 겹쳐져 있다. 이처럼 혼란과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살아오면서 웬만큼 저명한 인물이라면 친일경력과 독재정권에의 협조, 반민주적인 인권탄압 등 좋지 못한 과거에 묶여 도덕적 불명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점에서는 정주영씨도 예외가 아니다.

정주영씨는 한국사회의 밝고 어두운 면 모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역시 상반적일 수 있다. 그의 일생이 보여주는 성공과 실패, 영예와 오욕,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에서 균형적인 교훈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정주영씨가 지녔던 '특유의 동물적인 감각'과 '배포 큰 추진력'을 배울 것이며, 다른 이들은 어둡고 좋지 못한 그의 다른 측면을 반성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후세사가들의 평가는 시대의 과제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에 주는 교훈은 분명 있다. 그의 대북사업이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남북협력과 화해라는 민족적 시대적 과제를 다른 사람들에 앞서 읽고 몸소 실천하였다는 점이다. 바야흐로 도약과 퇴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우리 외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이든지 조직이든지 큰 스케일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닐까 한다.



생활협동조합 제7차 정기 대의원총회 공고

생활협동조합은 정관 제22조(총회의 소집), 제23조(총회의 소집통보),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에 의거 2000년 사업경과 및 결산보고와 200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확정을 위한 생활협동조합 정기 대의원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1년 3월 29일(목) 16 : 30
2. 장 소 : 후생관 2층 카페(식당/내)
3. 안의안건
   1. 2000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승인
   2. 2000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3. 2000회계연도 잉여금 처분(안)의 승인
   4. 2001회계연도 사업계획 안 및 예산(안) 승인
   5. 2001년 조합임원 선출 및 승인

2001년 3월 27일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결산 공고

회사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제7기 2000년 1월 31일 현재
제6기 1999년 1월 31일 현재

대 차 대 조 표

(단위: 원)

과 목	제7(당)기 금액		제6(전)기 금액	
자산				
I.유동자산				
(1)당좌자산		471,564,864		286,000,587
현금및현금등가물		391,769,258		221,647,705
금융상품		29,153,273		77,919,076
매출채권		323,850,255		141,055,630
매출채권		36,485,960		0
가지급금		2,279,770		2,672,999
(2)재고자산		79,795,606		64,352,882
상품		59,595,611		49,309,246
원재료		20,199,995		14,953,636
II.고정자산		45,077,653		60,928,722
(1)투자자산		2,393,000		1,693,000
임차보증금		70,000		70,000
기타보증금		823,000		823,000
출자금		1,500,000		800,000
(2)유형자산		42,684,653		59,246,722
구축물	39,926,000		38,690,000	
감가상각누계액	38,989,900	936,500	28,358,211	10,331,789
차량운반구	4,700,310		4,100,310	
감가상각누계액	4,099,310	1,000	3,841,035	259,275
비품	189,128,566		176,829,566	
감가상각누계액	160,529,253	28,599,313	128,348,810	48,480,756
비품(임차)	5,717,500		0	
감가상각누계액	2,258,782	3,458,718	0	0
시설장치	11,355,200		606,200	
감가상각누계액	1,966,078	9,689,122	521,298	174,902
(3)무형자산		0		0
(4)여유자산		0		0
자산총계		516,642,517		346,940,309
부채				
I.유동부채		79,436,882		61,668,728
외상매입금		73,785,534		54,618,044
예수금		1,100,910		2,187,470
선수금		397,940		397,940
미지급배당금		3,918,129		4,138,440
수익관련예수금(회)		424,078		188,834
II.고정부채		72,134,669		55,246,100
임대보증금		500,000		500,000
퇴직급여충당금	87,254,669		71,412,200	
신용연금퇴환금	15,620,000	71,634,669	16,566,100	54,746,100
III.이연부채		0		0
부채총계		151,571,551		116,914,828
자본				
I.자본금		24,358,000		25,375,000
출자금		24,358,000		25,375,000
II.자본잉여금		47,350,190		47,350,190
(1)자본준비금		47,350,190		47,350,190
기업주식발행액		47,350,190		47,350,190
(2)재평가적립금		0		0
III.이익잉여금		293,362,776		157,300,291
기이월미처분이익금		293,362,776		157,300,291
(당기순이익)				
당기 158,527,453원				
전기 78,289,771원				
IV.자본조정		0		0
자본총계		365,070,966		230,025,481
부채의자본총계		516,642,517		116,940,309

손 익 계 산 서

(단위: 원)

과 목	제6(당)기 금액		제5(전)기 금액	
I.매출액		1,683,289,310		1,491,578,765
상품매출	1,074,319,180		1,077,334,493	
제품매출	608,950,130		414,244,272	
II.매출원가		1,400,688,429		1,221,223,981
상품매출원가		787,934,677		799,528,989
기초상품재고액	49,399,246		43,255,630	
당기상품매입액	798,896,414		806,387,699	
타계정으로 대체액	765,372		715,094	
기말상품재고액	59,595,611		49,399,246	
제품매출원가		612,753,752		421,694,992
기초제품재고액	0		0	
당기제품제조원가	612,753,752		421,694,992	
기말제품재고액	0		0	
III.매출총이익		282,580,881		270,354,784
IV.판매,일반관리비		319,247,404		321,593,757
직원급여	124,008,760		130,642,070	
상여금	36,164,250		38,520,000	
급료	65,818,850		50,336,500	
복리후생비	22,531,416		22,201,875	
여비교통비	9,972,300		6,399,400	
접대비	442,400		719,150	
통신비	2,607,160		2,589,640	
세금과공과금	163,130		149,480	
감가상각비	21,749,819		29,328,331	
수선비	480,000		1,133,340	
보험료	5,223,180		3,446,110	
차량유지비	1,320,660		1,630,070	
훈련비	23,000		70,500	
교육훈련비	6,577,670		8,483,350	
도서인쇄비	447,600		1,233,800	
회의비	2,472,100		2,299,900	
사무용품비	1,062,640		2,026,096	
소모품비	6,320,360		4,989,710	
지급수수료	8,881,000		9,497,215	
광고선전비	501,360		428,500	
기밀비	0		1,800,000	
잡비	48,029		30,000	
출판회비	3,009,686		3,638,720	
로열티	23,040		0	
V.영업손실		36,666,523		51,238,973
VI.영업외수익		206,129,928		149,047,168
이자수익	9,339,347		3,015,759	
수입임대료	160,000		160,000	
배당금수익	0		196,722	
수입수수료	227,000		2,288,260	
복리후생비	166,330,000		0	
공중전화수입	0		183,070	
잡이익	21,662,080		136,054,267	
잡이익	8,411,501		7,149,090	
VII.영업외비용		10,935,952		19,508,424
기부금	8,570,000		17,450,000	
공중전화통신비	29,750		343,330	
우상비	0		1,000,000	
잡손실	2,336,202		715,094	
VIII.경상이익		158,527,453		78,289,771
IX.특별이익		0		0
X.특별손실		0		0
XI.법인세차감전이익		158,527,453		78,289,771
XII.법인세등		0		0
XIII.당기순이익		158,527,453		78,289,771

흡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자격 :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 제한 없음 / 매수 : 200자 원고지 4~5매 / 마감 :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투고방법 :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나우 OEDAE, e-mail oedaepress@hanmail.net)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maincc.hufs.ac.kr/~weekly

흡산은 HUFS(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외대학보를 읽고

새내기 특집면 기획력 참신해

새내기 특집면의 말학취재가 기억에 남는다.

한 새내기의 하루를 살펴보며 이번에 들어온 01학번들은 학교의 첫 이미지가 어땠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좋았다.

윤혜정(서유럽 · 불어 00)

현재 사회문제 발빠른 대응 돋보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었다.

현재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아 좋았다.

유정윤(서유럽 · 불어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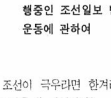
우리교과서랑 맞먹어 일본 교과서 집필자

난 신문 안본다. 인터넷만 한다. 쫓선일보님 죄송합니다.

-원빈

왜곡된 정보사실 ◀ 독자 ◀ 편집국장 ◀ 사주(재벌로비)..이 구조 자체를 바꿔야

-언론사슬 정보



주제: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조선일보 반대 운동에 관하여

조선이 극우라면 한겨레는 진보의 탈을 쓴 좌익인가?

-조선일보

왜곡, 위선, 아첨의 교과서

-한겨레

"제2건학기획단"은 소멸하였나 질서정립, 금연정책 도입부터

불과 몇 달전만해도 'HUFS VISION 21'이라는 함목이 학교 홈페이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학교의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내용이 주가 되었고 또한 온라인 상에 '제2건학기획단'의 소개와 주요계획도 명시하여 이 학교가 어디로 흘러갈 계획인지를 부족하나마 말해주기도 하고, '비전제안방'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 홈페이지에선 찾아 보기가 어렵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있긴 하다는 얘긴데,홈페이지 옆 목차란에 '부속/부설기관'으론 들어가면 우측 맨 하단에서 어렵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문제의 'HUFS VISION 21' 마저도 이젠 껍데기 뿐이다. 자세하게 얘기 하자면 '제2건학기획단 소개', '분야별 주요과제', '사업계획'란은 전부 다 공란이고, 제안방은 이미 몇달전 글 쓴이를 끝으로 종쳐버렸다.

본교의 얼굴로 여겨지는 학교 홈페이지 (분명히 공식적이고 대중적이다)-보기엔 고급 술병인데 술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면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뉘 있을까. 더구나 그것이 학교의 청사진을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목록이라면? 긴말 할것 없이 다른 학교 홈페이지를 잠깐 둘러보길 권하고 싶다. 쉽게 얘기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내년엔 무슨 건물이 완공되고, 어떠한 교과 과정이 신설되고 하는, 있는 사실한도 내에선 저미다의 애교를 맘껏 부리고 있는 마당이다. 물론 그 내용을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걸 우리도 심사숙고 하며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단 얘기다.

보다 본질적인건 엄마전만 해도 거창하게 이얘기 저얘기 그나마 몇사람들 가슴 부풀리게 만든 그 '제2건학기획단'들의 실체는 지금도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왜 온라인 상에서는 사라졌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름 거창한 단체가 그렇게 흐지부지 논의 없이 사라져도 되는지, 선뜻 이해가 안간다.

'제2건학기획단'은 보다 넓은 자리로 나와 서주길 바란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을 촉구하며 여러 학교 구성원들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놓기 바란다. '외대발전'이란 말은 '기획단'이나 '추진회'니 하며 교수, 직원 몇분이 모이는 역량으론 분명 어림없는 일이고 이뤄져서도 안된다.

박원기(서양 · 영어 97)

등록금 투쟁, 본관 신축 등 학내사안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야

엄마전 총학생회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전교생이 교육의 죽음을 상징하는 검을 옷을 입고 등교하는 날로 선포했다. 그리고 대자보를 붙이고 가두 캠페인을 하는 등 홍보를 하였다. 필자도 학생회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그 취지에 동감해 당일에 검은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대략 20 퍼센트 정도도 안 되는 학생만이 흑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에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과연 등록금 인상과 건물 신축의 부당성을 느끼는 사람이 5명중에 한 명도 안 될까. 검은 옷을 입고 나오지 못한 이유는 가지가지 일 것이다. 우선 학생회의 생각에 반대하거나 이번 계획을 모르는 학생 혹은 검은 옷이 없거나 입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 등등.

그렇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무관심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최근 만나본 사람들 대다수는 이번 사태의 부당성에 관해 대체로 긍정하는 분위기였다. 우선 본관신축과 등록금 인상이라는 문제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재단사정이 극히 열악해서 학교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본관신축이 강행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필자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건물신축비용은 기부금과 ARS모금으로 충당한다고 공언했는데 실제 이런 모금이 기대에 못 미치자 등록금으로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다고 알고 있다. 미네르바 동산이라는 유일한 외대의 자연 휴식처를 포기해야만 하는가에서부터 만약 건물을 신축한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등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신축 문제나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외대 구성원 사이에 대화나 합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신축의 결정부터 공사대금 마련, 공간 배정 문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 등의 문제에 관해 학교는 철저히 학생들을 소외시켜 왔다.

또한 이들문제에 대해 학교측은 원론적인 말만 늘어놓을 뿐 성의있고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총장님은 온 외대구성원의 축복속에 곧 기공식이 행해질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여기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하지만 학생 중 상당수는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며 공분하지만 튀고 싶지 않다던가, 귀찮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호전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학생회의 금요일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학생회측 사람들이 그 날 따라 측은하고 안스럽게 느껴졌다. 의욕적으로 나서는데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기운이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론 학생회 간부들의 정열적인 활동에서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구성원인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해도 사태가 담장 호전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학생회도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건물 신축에 관한 학생회측의 주장에 학생들도 이에 적극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 분명히 알리고 학생회의 향후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된다.

총학생회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외대학생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김태국(상경 · 경제 97)

명당

왜곡된 역사교육과 국제 미아

박용구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일본연구소 책임연구원〉

땀뿔만한 대머리,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유명해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일명, 쓰루루카이)의 회장, 니시오 간지의 생김새이다.

97년 2월, 대머리 친구를 비롯한 「쓰루루카이」의 대표주자들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한 장장 4시간의 아사히TV 토론프로의 주제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역사교육」이었다.

흡사 전투병사와 같은 「쓰루루카이」 핵심멤버들의 비장한 표정이 텔레비전에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매춘부 내지 창녀였다' '한국에 취재를 갔더니 야당 정치가나 대신문사의 편집국장 등이 이 주장에 동의했다' 는 등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들의 발언에 분노를 넘어 인간적인 가련함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은 홈페이지 「쓰루루카이(つくる會)」를 통해 종군위안부 왜곡을 넘어서 신국(神國) 일본, 정의로운 침략전쟁, 아시아 해방자로서의 일본이라는 궤변, 나아가 역사적 사실의 누락과 가필을 통해 일본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을 선언했다.

툭 하면 터져나오는 우익 정치가들의 망언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행동은 주변 국가들을 분노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각계의 일본 우익 지식인들의 조직적 합작품이란 점에서 개인의 망언과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또한 왜곡된 역사교육이 일본의 신세대들에게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주입시킴으로써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일본사회의 우경화 조짐의 일단을 명확히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다. 그 동안 어슴프레했던 일본사회의 한 흐름이 구체화함으로써 견제자로서의 주변국의 역할이 보다 명확해진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적 입장 즉, 과거사를 덮어만 둔다고 해서 바람직한 미래의 한일관계가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광범위하고 신빙성 있는 사료 조사와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역사왜곡으로 인해 언제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정부가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왜곡 주체인 일본은 물론 중국이나 동남아를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일본인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민간차원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다. 관련된 일본어판 단행본의 출판이나 인터넷 교류을 통한 일본국민과의 교신에 의해 일본인 스스로가 기르치지 않는 일본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한편, 「쓰루루카이」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역사 왜곡을 통해 일본인의 자존심을 살리려는 행위가 그들의 후손과 이웃 나라 또래집단과의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일으켜 일본의 신세대들을 국제적 미아로 만들고 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www.unews.co.kr
news
UNEWS 창간 기념 전대기련 공동광고

NEWS
▶ 온라인대학신문
▶ 전문기자통신
▶ 해외통신
STORY
▶ 화제의 인물
▶ 생활속 작은 이야기
▶ 빛 그림
COLUMN
▶ U 칼럼
▶ 연재실록
DATA BANK
▶ 대학정보자료실
▶ 사진자료실

2001년 3월 5일 창간

대학 | 사회 | 문화 | 학술 | 정보통신 | 커뮤니티

전국대학신문 이제 클릭해 읽는다

전현직 대학신문 기자들과
독자들이 만드는 대학뉴스 창간

한국언론 역사에서 '제대로 된 할말'을 하는 신문은 하나였다. 독재정권의 언론통제아래서도 자본의 언론장악 아래서도 '정론직필(正論直筆)'의 한길을 걸어 온 신문은 하나였다.
2백만부의 힘을 자랑하며 한국사회 진보의 역사를 선두에서 개척해 온 신문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대학신문.
언론을 그 생산과 소비의 주인인 국민대중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언론을 국가권력과 자본의 품에서 국민대중의 품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언론을 민주와 통일의 목탁으로 거듭나게 하고 싶었다.
unews는 대학신문기자들의 이러한 소망을 안고 태어났다.

대학종합뉴스 · 정보제공
▶ 대학신문기자들이 전하는 전국대학 소식
▶ 전국대학신문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대학에 관한 모든 정보 (2백여 대학소개, 대학가 인물정보 등)

전여 새롭게 보도되는 사회뉴스
▶ 각계 전문지 기자들이 전하는 우리사회 뉴스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직접 전하는 뉴스

독자들이 직접 전하는 뉴스
▶ 언론의 주인은 독자대중, 독자대중이 전하는 뉴스
▶ 2천 2백 전문기자와 독자기자의 함께 빚어내는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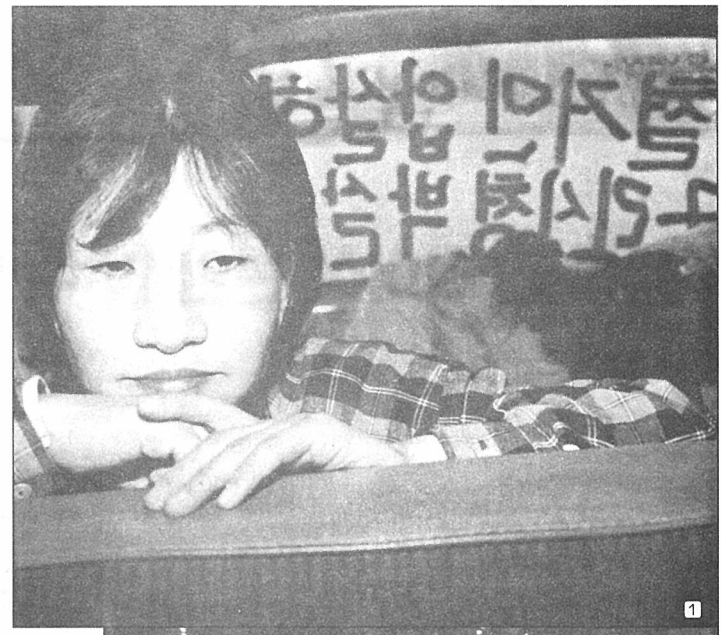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기사쓰기
▶ UNEWS 게시판
▶ 전체기사
▶ 기사검색
찾기

최촌마을 철거민을 찾아

가난은 억울함이예요

"아 날씨 정말 좋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요즘. 지난 겨울을 생각하면 이 봄날씨가 고맙지만 여전히 미래가 추운 사람들이 있다. 현희(4), 혜란이(17), 기승이(12)네. 이 세가족이 살고 있는 집은 여기저기 이동할 수 있다. 왜냐면 봉고차와 트럭이 이들이 생활하는 집이기에.... 이 집(?)에 살고 있는 14명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다. 왜냐면 이들의 주민등록증은 말소됐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이들은 허공에 뜬 신세가 된 걸까? 구리시 인창동 속칭 '최촌마을'. 지난해 3월까지 현희네 집은 이곳에 있었다. 가진 것 없지만 하루종일 지쳤던 몸을 뉘일 수 있는 방 한칸이라도 있었던 167가구는 현대조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강제 철거됐다. "많은빵이로 만들어버리겠다. 트럭으로 건널목 건너는 아이들을 밀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용역깡패들은 집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창문 밖에서 돌, 병, 연탄집게 등을 던지고 각목을 휘두렀다. 이에 견디다 못한 162가구는 결국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최촌마을을 떠났다. 남은 세가구는 가수용주택 마련을 요구하며 구리시청 앞에서 아이들과 길거리농성을 8개월 넘게 진행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희는 지난 해 4월 말에 농성 중이던 가족들을 향해 시청직원들이 물을 뿌려 귀에 물이 찼는데도 제때 치료 받지 못해 피고름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또한 이슬을 피하기 위해 덮은 비닐을 찢고 뺏는 구리시청 주택과장에게 기승이는 비닐 잡은 손을 놓지 않아 끌려가고 맞아 결국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갔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구리시청은 최촌마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말소시켜버렸다. 이에 철거민들은 주소를 옮기면 이제까지의 싸움이 물거품이 되기에 옮길 수 없다며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직원을 막기 위해 음식물 오물을 뿌려 입무방해 혐의로 6개월동안 감옥에서 살다온 아이들의 어머니. 그녀는 산 사람이 거미줄 치겠냐며 6차선 도로 옆에서 밥을 지었다. "오늘 가족 모두가 냉이 캐고 왔어요. 그걸로 만든 국인데 입맛에 맞을란가 모르겠네"며 건네는 국에서 봄햇살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시청직원들이 모든 살림살이를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 교복과 교과서가 없어 고생했다는 혜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봉고차 문을 열며 "엄마 어딨어요?"라며 엄마를 찾는 사춘기 소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난이 청소년기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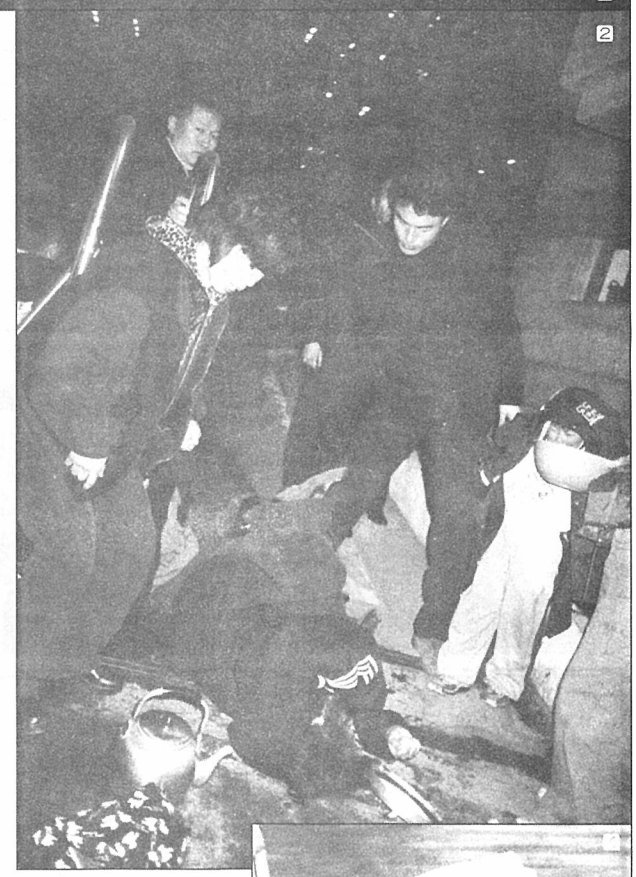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도 않은 채 용역깡패를 동원해 강제철거하는 임대건설업체. 그 업체에게 로비당해 가진 것 없는 시민들을 외면하고 압박하는 정부기관. 힘 없고 가진 것 없어 설움과 분노만 남는 철거민들....이런 얘기는 7.80년대에 빈번히 일어났던 사건들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도 최촌 철거민들을 비롯한 봉천동, 상암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등등의 많은 철거민들이 힘든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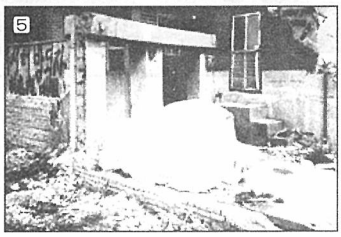
1

3

제작 · 사진부



2



5

■ "아이들이 공부를 전혀 할 수 없어요. 중 · 고등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집에 오려 하지 않을 때 부모 마음은 참 아파요"라는 김영희(37)씨. 돈과 권력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치에만 혈안이 된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직' 하게 자라고 있어 위로가 된다는 그녀. "이제 각 분야로 나갈 대학생들이 정직하게 활동해 정부가 주택정책을 바로 세워 힘없는 우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얘기하기도 했다.

■ 지난 2월 추운 겨울. 밥을 하기 위해 물을 뜨러 가는 아주머니들을 시청직원들이 넘어뜨리며 막고 있는 사진. 구리시청은 화장실 환경미화 저해라는 명목으로 최촌 철거민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키고 심지어 구리시 동사무소에 연락 해 물 사용을 금지시켰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위해 씻을 곳을 찾아 다녀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 봉고차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 그들은 밥상이 필요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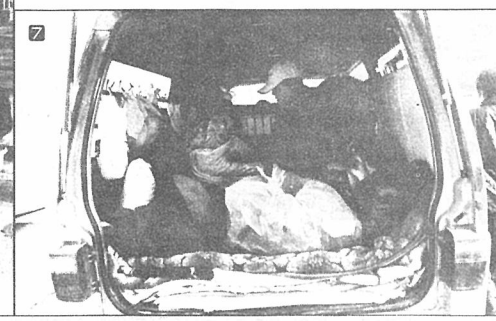
■ "어니~사진 한 번만 찍어봅게. 한번만"하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웃음을 짓는 현희(4). 그 녀석의 웃음을 보고 사진기를 목에 걸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까지 지난해 4월 시청직원들이 뿌린 물이 귀에 들어가 고름이 나와 고생 하고 있다는 현희. 그 웃음을 잃지 말았으면 한다.

■ 최촌마을이 철거된 모습. 살던 집에서 강제로 나와야 하는 철거민들의 상처를 보여주는 듯 하다.

6

■ "빵빵" 6차선을 달리는 도로 옆에서 밥을 짓고 있는 철거민 아주머니. 물이 많지 않아 조심스럽게 냉이를 씻고 있다.

■ 다리 하나 제대로 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피곤한 눈을 붙여야 하는 그들. 벌써 이런 생활을 8개월 넘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다.



7

"등록금, 더이상 논의 할 수 없다"

장소 - 용인배움터 도서관 2층 세미나실

학교측 - 조규철 총장, 이용린 부총장, 박찬구 용인배움터 학생처장, 한형곤 기조처장

학생측 - 양경수(동유럽·플란드어 95)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황중환(인문·철학 94)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최정현 서유럽학대 학생회장,

△등록금

공청회는 "용인배움터 문제는 용인배움터 부총장에게 위임하겠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교직원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장기 발전안에 따라 차근차근 개선시키겠다"는 총장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됐다.

양경수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총학생회장)은 "터놓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답한 후 공청회를 진행했다.

총학생회장 : 올해도 학교측은 합의되지 않은 채 등록금을 7% 인상했다. 이는 방학 기간은 등록금 논의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측은 이를 재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대학평의원회를 의결기구화할 용의는 있는지도 함께 답해달라.

조규철 총장(총장) : 우리학교는 7%를 인상해도 총액은 타학교에 비교해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등록금이 책정돼야 학사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 등록금이 이미 결정된 이상 앞으로 사용, 집행을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학생회장 : 등록금 조정이 안 된다면 총학생회는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1학기 등록금과 관련해 다시 논의할 용의가 없는가?

한형곤 기획조정처장(기조처장) : 학생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가 올해만 얘기하고 그만두는 단기적인 사안이 아니다. 실무자로서 재논의는 힘들다.

총학생회장 : 학교측은 합의문을 통해 등록금과 제반한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 논의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는가?

박찬구 용인배움터 학생처장(학생처장) : 포괄적, 일반적 논의로서 밝힌 것이었다. 등록금은 1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대화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총학생회장 : 7% 인상된 등록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 없는가?

총장 : 6번의 등록금조절위원회, 3번의 대학평의원회를 통해 논의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의 경제난을 고려해 7%로 최대한 조정한 결과이다. 또한, 재단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이라 다시 논의하기 힘들다. 등록금 분할문제는 3회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4월쯤에 대학평의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총학생회장 : 학생들은 등록금 7% 인상에 합의한 적 없다.

총장 : 등록금 논의는 다시 할 수 없다. 무한히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재단 전입금

황중환 용인배움터 부총학생회장 : 우리학교의 수익용 재산의 규모는 사립대학 중 10위(98년)다. 하지만, 재단 전입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임시이사체제라면 사립학교법에 명기된 재단의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총장 : "자곡동 땅, 동원농장 등 재단의 재산이 있지만, 실질적인 이윤이 남는것은 거의 없다. 현재는 동원안전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용인배움터 도서관 설계에 들어간다. 또한, 용인배움터 진입로 주변 땅을 팔 용의가 있다. 또 다른 재단 재원 가지고 들어오게 할 계획이다. 설립자 김씨 동원문중 2, 3명의 인사,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문, 교육경력자 중 현 재단이사회에서 2학기 중에 결정할 것이다.

△등록금 의존률

총학생회장 : 전국사립대학평균 등록금 의존률이 대학평균 63%로, 79.4%인 우리학교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를 개선할 방법들이 있다면 말해달라.

기조처장 : 의과대학이 있는 경우는 일단 재단전입금 투입되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낮을 수 있다. 또한, 공대가 연구수주를 받을 경우 의존률을 낮출 수 있다. 학생들이 서강대와 비교하는데 서강대는 종교재단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은가?.

총학생회장: 이 자료는 사립대학 평균이다. 전국에 사립대 중 의대가 없는 곳도 많다. 의대가 없는것을 감안하더라도 의존률 자체가 13% 이상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등록금 5%선 억제책

총학생회장 : 학교측은 교육부가 국고지원금로 위협하며 등록금을 5% 이내로 억제했지만, 학교측은 이를 어기며 5% 높음을 했다. 국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등록금을 5% 인상했을 경우 학교가 입는 손실은 1, 2억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권고책을 어기면서까지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겼다.

총장 : 우리학교는 총액으로 서울 시내 25개학교 중 인문계열은 22번째, 공학계열 21개교 중 20위이다. 재정적 규모가 작다. 등록금 총액이 적기 때문에 5%권고를 지키지 않아도 교육부로부터 국고가 끊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용인배움터 복지사안

총장 : 작년에도 용인배움터가 시설개편을 일괄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명수당 준설공사를 실시했으며, 스쿨버스 6대를 증차했다.

학교측은 테니스장 준설공사 등 복지사안 시행했음을 거듭 얘기했다. 총장은 학원 3주체 중에서도 학생을 가장 큰 '고객'으로 여긴다는 자신의 견해를 강조해 얘기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 '고객'이 아닌 '주인'임을 주장했다. 뒤늦게 총장과 학교측은 '고객'이란 단어를 '학생들을 귀히 여김이라는 뜻이다'라고 해명했다.

△총장 활동비 내역과 관련해

총학생회장 : 총장활동비로 8000여만원을 썼으며, 작년 직원상여금으로 6억원을 밝혀졌다.

총장 :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상여금은 긴축재정 통해 얻은 돈으로 지출한 것이다. 우리학교 직원들이 서울에서도 급여가 중하위권이다.

총학생회장 : 가능하면 환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 법에 맞게 써야한다. 솔선 수범, 공명정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과지원비와 학생지원비는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학생과장 : 학과지원비는 공개적으로 할 것이다. 학생지원비는 급박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비해 마련해둔 돈으로 공적으로 사용됐지, 사적으로 쓰인 일이 없다.

총학생회장 : 학생지원비가 공적으로 사용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학생과장 : ……

△ 질의응답.

김승현(자연·화학 93)군은 "학생들은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다. 주위 과 학생들의 편입이유 교통소요시간 너무 많아서이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학생들의 민심은 이미 학교를 떠나고 있다. 명수당 시비건립과, 테니스 코트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없다. 공청회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의지적 실천으로 보여줘야 해결되는 문제. 눈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총장은 "'고객'은 학생들에게 만족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쓴 단어이다. 지연대, 공대 학장들은 방학 중 해외연수를 통해 발전의상을 그리고 있다"고 답했다.

정리 : 대학부

maincc.hufs.ac.kr/~weekly

'외대학보' 집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 곳은 외대인 누구나 편히 들렀다 갈 수 있는 집입니다. 주인은 바로 외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집들이'를 꼼꼼하게 한 후 계속 들려주세요. 재미있고 내용성있는 것을 많이많이 준비해놓겠습니다.

르뽀 - 등록금 인상, 그 현장을 가다

"휴학을 결심하는 것외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우리학교의 등록금이 작년보다 7% 인상됐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그나마 9%에서 7%로 내린 것이라고 한다.

올해도 '가계곤란 자녀의 학비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처,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는 특별장학금 신청을 받았다.

생활협동조합을 찾아 복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생협학생위원장육성원(자연·생명공학 96)군은 굉장히 난감해 하는 모습이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떳떳이 밝히기 어려운 것들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욱군을 여러 번 설득한 끝에 어렵게나마 자료를 건네 받을 수 있었다.

자료를 건네 받은 후에도 '복지장학금'이라는 '특별한' 장학금을 받은 탓에 선발된 학생을 만나보기는 정말 힘이 들었다. 어렵게 통화에 응해준 김모군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물론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일 힘든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상의 부담이다"며 "등록금이 또 올라 많은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자신의 처지를 말한다. 또 다른 복지장학생인 이모군 또한 "식구들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다"고 한숨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에 죄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학교 학생들의 현실이다.

지난 9일(금)부터 14일(수)까지 학생처를 통해 특별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은 모두 174명이다.

학생처 장학담당 김문배씨는 "신청인원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신청한 학생들의 가계 형편 수준은 현저히 떨어졌다"고 전한다. 그 만큼 '진짜'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학생처 특별장학금을 받은 박모양은 "가계에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다"며 "휴학을 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끝을 흐린다. "우리 가족상황을 이야기하고 증명서류를 작성하며 솔직히 서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며 "학교 시설의 변화는 잘 모르겠는데 왜 해마다 등록금이 인상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부당함을 토로하는 김모양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난다.

그다지 높지 않았던 은행융자 신청인원도 460여명으로 예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다. "융자 신청을 한 학생들이 많이 늘어 학교와 상관없던 은행도 및 군데 더 알아보았다"는 관계자의 말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따라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우리학교 명성이 떨어지고 있다. 명성을 되찾기 위한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곳에서의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때까지만 이해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공청회에서의 기획조정처장 한원곤교수의 발언이 생각난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의 재정확충지원이 있을 때까지 그저 우리는 이해심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학교의 '제 1고객'이 아닌 '주인'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수경 기자 seoulmater63@hanmail.net

외대생 87.09%, "등록금 인상 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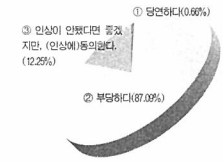
대학 당국의 등록금 7% 인상 통보 이후, 앙 배움터는 등록금 투쟁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앙 배움터 재학생(01학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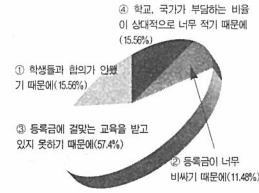
서울배움터 180명 용인배움터 185명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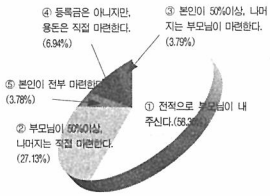
1.올해 등록금은 작년에 대비해 7% 인상됐습니다. 학교 당국은 물가인상,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인상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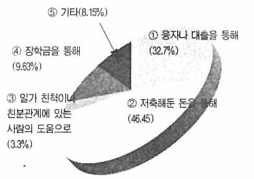
2. 질문 1에서 ②번에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등록금 마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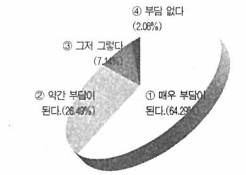


4. (질문 2에서 ①번에 답했을 경우) 부모님이 마련하실 경우 그 형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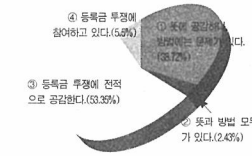


5.(질문 2에서 ①번을 제외하고 답했을 경우) 본인이 마련하는 돈은 어떻게 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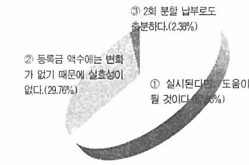
6.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되는 정도는?



7. 현재 앙 배움터 총학생회는 올해 등록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배움터는 등록금 환불요구서, 용인배움터 민주납부의 방법으로 등록금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3회 분할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등록금은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난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나흘간 실시된 설문조사 따르면 87.09%의 외대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등록금 인상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에는 '등록금에 걸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57.4%)' '학생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15.56%) '학교,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15.56%)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가 11.48% 순으로 나타나 외대생들이 학교의 교육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등록금에 비례해 학교측이 제공하는 교육의 만족도에는 평균 33.7점(100점 만점 기준)이라 답했다.

또 9.22%를 제외한 학생들이 등록금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고 답했으며, 64.23%의 학생들은 가계에 부담이 매우 크다고 대답해 등록금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록금 마련에 대해서는 58.36%의 학생들이 전적으로 부모님이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2.7%가 융자 및 대출을 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등록금 마련을 '부모님이 50%이상, 나머지는 직접 마련한다(27.13%)' '본인이 50%이상, 나머지는 부모님이 직접 마련한다(3.79%)' '등록금은 아니지만, 용돈은 직접 마련한다(6.94%)' 또 '등록금을 본인이 전부 마련한다'는 학생들도 3.78%가 됐다.

본인이 등록금 마련을 하는 경우에는 50%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를 하며 이를 위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0시간정도를 소요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과외를 제외한 주유소, 빙일, 대형 마트, 커피숍 등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평균 40시간(일주일) 동안 일을 한다고 대답해 학업에 지장을 주는 부조리한 단면을 나타냈다.

등록금 투쟁에 대해서는 97.57%의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었으나 41.15%의 학생들이 방법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등록금 투쟁의 방법의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활동의 홍보와 투쟁의 여론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배적인 의견은 앞으로 있을 총투표 등의 학생회 활동에 더욱 홍보와 여론조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외에도 투쟁의 여론 조성, 다른 학교와의 연대투쟁, 집단 등교 거부, 전교생의 단식 투쟁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서울배움터 총학생회가 요구하는 '등록금 3회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실시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67.86%)'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감하고는 있지만, '등록금 액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29.76%)'는 결과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해 요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교육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이승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해 수십, 수백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정부가 이제는 대선 때 약속했던 교육재정 5%확보의 약속마저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신자유주의라는 망령이 들어 최소한의 성역으로 지켜져야할 공등의 권리인 교육권마저 시장논리로 경쟁의 논리로 마음껏 가위질 해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가슴앓다 비관자살한 한 딸의 아버지가 있고, 자신의 미래와 삶의 전망을 상실하며 토익, 토플에 목을 메어야 하는 이 땅의 대학생들이 있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서 정상적인 수업 하나 듣기 힘든 교육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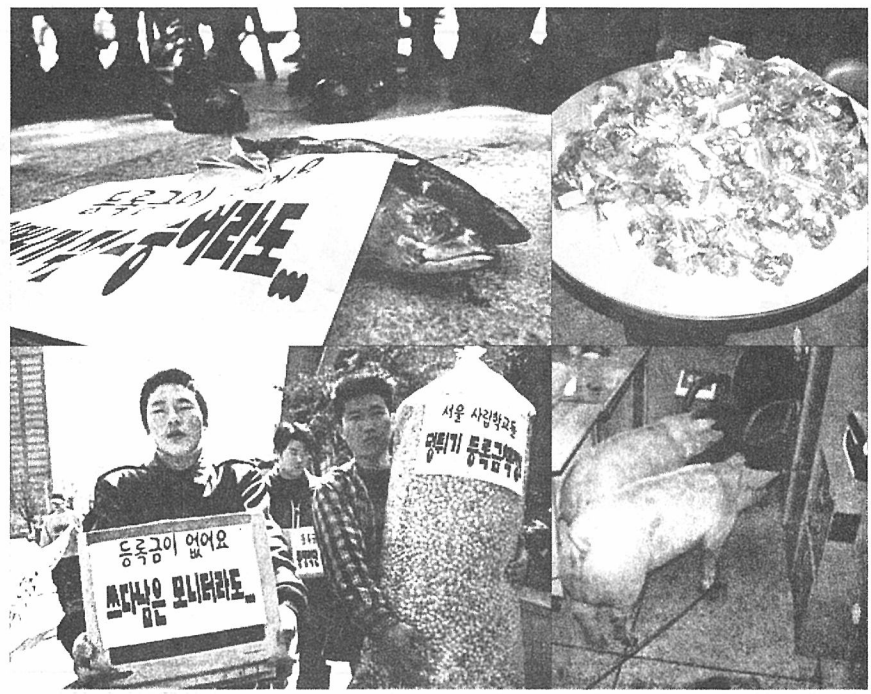
대학생들 중 반이상이 취업 전선에서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현실, 겨울 거리 스치는 사람들 중 반이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등록금 납부가 부담스러워 휴학을 하는 친구들, 상해들.

이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7300 외대인의 이름으로 뻔한 전년학생의 외침으로 아니 정부들의 귀한 충고로 감대중 정권 출년간 교육정책에 이제 파탄을 선고/하겠다/

3월 항쟁을 전국 대학생들의 뜨거운 분노의 함성으로 뒤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감대중 정권의 교육정책에 선전포고를 내리고 그 불길을 거리로 쏟아부었다. 우리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눈먼정치에도 불만을 가졌지만도 안되는 것을 보여줬다. 오직 경쟁과 자본의 논리로만 점철되어있는 정권의 교육정책에 우리의 대일을 걸지 말자.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였을 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기만 갔어도 정권이 30일 거리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해외문화

외대 주변 문화를 찾아 - ① 생활한복 이야기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더불어 사는 옷'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햇살이 드리워진 봄의 문턱이다. 긴 외투와 무거운 잠바에서 어느새 학내 학생들의 옷차림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 하다. 기다렸던 봄의 따뜻함속에 아름다운 '우리 옷'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외대에서 경희대 쪽으로 주욱 걸어올라 가다보면 10년을 한결같이 그 곳을 지켜 온 사람이 있다. 한결같이 우리 문화를 지키고 알려 온 사람이 있다. 바로 생활한복을 만들어 파는 일을 10년이 넘게 해 온 민족생활문화전문점 '솔아솔아푸르른솔아' 대표 김영조(51)씨다. 외대 앞 비스마르크 골목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김씨는 그래서인지 외대생이라는 말에 반갑게 맞아주셨다.

은은한 한지 조명 아래 누렁소털색, 팥죽색, 수박색, 진남색 등의 생활한복, 찻잔, 병풍, 액자 등이 한데 어우러진 흔하지 않은 이 분위기에 처음에는 오히려 이색적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낯선 듯 흥겨운 국악을 들으며 생활한복을 구경하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푸근해진다.

생활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는 그의 첫 인상은 옷을 파는 사업가로 보이지 않았다. 손님이 들어와도 옷을 사고 파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듯 했다. "사업가였다면 벌써 돈을 많이 벌었지요. 제 직업은 민족생활문화운동가입니다. 부업으로 옷을 팔고 있지요"라고 옷으며 전하는 김씨는 일부 동종 업자들과는 달리 큰 돈을 못 벌었다. 소비자들의 요구대로 제품에 붙어 있는 대님을 떼고 팔았다고 해서 매출 1위의 대리점을 폐쇄해버렸을 정도인 그의 고집이 문제였다. 그는 융통성이 없는 것일까?

생활 속에서 편하게 입지면 고칠 것은 고쳐야 하지 않나요?

"1백~2백년 후에는 한복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처럼 발돋움하는, 제대로 생활한복이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을 잃어버리면 원형이 상실됩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서양옷도 입을 쓰는 데 한데까지 잃으면 서양옷이 되어버리죠. 생활한복은 보통 여느 상품과는 다릅니다. 민족문화가 걸린 중요한 상품이니까요"

그는 시중에 나와 있는 생활한복들에 대해 할 말이 너무나 많았다. "한복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동정인데 바느질 하기 힘들다고 동정 끝은 브이자로 맞추지 않고 잘라버리거나 동정을 안쪽으로 넘기지 않고 조각으로 붙입니다. 심지어 현대적 감각을 살린다고 차이나칼라를 쓰기도 합니다. 섶도 문제인데 섶이란 천을 덧대어 품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게 한 것으로 옷을 편하고 안정되게 하며 섶끝이 버선코처럼 나와 있어 매우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원단과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섶을 안 달고, 달아도 섶코 만드는 게 번거롭다고 생략해버립니다. 그리고 저고리 아랫단 동근선을 도련선이라 하는데 이것을 직선으로 자르기도 합니다"며 하나하나 생활한복의 특성과 함께 현재 국적불명 상태인 생활한복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생활한복은 하청구조로 대부분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청구조이다보니 만드는 사람조차 섶, 도련을 몰라요"라며 한복의 기본도 모르고 만드는 옷들이 한복의 재창출, 재소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고 전한다. "소비자를 위한 정성어린 옷이 자신의 사업도, 또한 민족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다"이것이 김씨의 생활한복에 대한, 사업에 대한 철학이다.

생활한복이 활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365일 잠을 잘 때만 빼놓고 생활한복을 입고 다니며 직접 검토를 합니다. 내가 입어보니 이런점은 불편하구나를 느낄 수 있고, 전통한복의 원칙, 철학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 고민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싸다고 하여 합성섬유를 쓰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정전기나 두드러기가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요즘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한복 안주머니에 핸드폰 주머니를 만드는 것, 허리띠를 뒷축에 붙여주는 것 등입니다"

그가 만든 생활한복 남자바지에는 대님이 붙어 있다. 더욱 편하게 만들자면 어떤 소비자의 요구대로 대님을 떼어도 되지 않을까. "한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복은 대단히 과학적인 옷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살려면 가슴 위로는 차게하고, 배꼽 밑으로는 따뜻게 해야 한다는 데 한복이야 말로 소매끝이나 가슴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하체는 허리끈과 대님을 묶어 바람을 막아 놓았습니다. 또 대님 없이 옷을 줄여놓은 것과 대님을 묶어 내린 것과는 바지 맵시에서 무척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대님은 꼭 지켜야할 원칙이죠"라고 전하는 그는 대님을 묶으며 하루 일과를 생각해보는 여유로움 또한 대님이 갖고 있는 의미 중 하나라고 전한다.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인다.

우리 옷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복의 가장 큰 특징은 '더불어 사는 옷'이라는 점입니다. 허리가 보통의 두배이기 때문에 내옷을 다른 사람이 입어도 되는 더불어 입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천연원단과 천연염색으로 인한 자연스러움과 여유로움, 넉넉한 옷, 감추어 지는 옷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대인들은 정신 스트레스가 큰 병인데 육체적 몸까지 옷으로 꼭 조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복의 넉넉함이야말로 과학적으로도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전통한복보다는 덜하겠지만 무엇보다 색깔, 섶코, 버선코 등에서 오는 아름다움, 품위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복에 대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복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국수주의자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그.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한복은 충분히 과학적이고도 아름답다"며 국수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으면 정말 안타깝다고 한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미의 가치가 서양화되었다는 것을 비판한다. "서양옷이 자연스럽고 한복은 낯설다는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며 서양 것이라면 우리 것 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심리가 바로 사대주의이며 이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한가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 온 세계가 주목했던 그 장면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한복을 입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 또 얼마전 우리나라의 경사였던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 할 때도 말이다. "지도자와 언론이 반성해야 합니다. 한복의 이미지, 우리것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지 이것을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그는 10년째 국수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으며 외롭게 생활문화운동의 선구자로서 살아왔다. "안치환 노래 중에 '숲을 지나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가끔 그게 내 삶이 아닌가하지만 '흘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칭찬 한마디에 모든 어려움들을 잊고 삽니다"고 전하는 그. 그는 민족문화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라는 명제를 확실히 얻었다며 활짝 웃음지었다.

('솔아솔아푸르른솔아' 전화 : 969-7771)
윤홍은기자 happyend21@hanmail.net

단아한 진남색 생활한복을 입은 동유럽학대 학생회장 정기수(동유럽·체코어 97)군.

지난 새내기 새로배움터를 준비하면서 미련했다는 그는 단대행사, 단대를 대표하는 자리가 있을 때마다 생활한복을 입어왔다.

"예전부터 생활한복을 무척 입고 싶었는데 입기까지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정군은 학생회장이 되면서 그 용기가 생겼다고 웃으며 전한다. "새내기들에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대학문화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 생활한복을 입게 된 이유라고 한다.

주변사람들로부터 "할아버지 같다"는 가슴 아픈 말을 들기도 했지만 새내기들에게는 '베추도사, 무도사'라는 별명도 생기고 손금을 봐달라며 금새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며 에피소드를 전한다. "하지만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 '진지해 보인다'는 등의 단대장의 위상을 살려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흐뭇해 했다.

"입기전에는 괜상복보다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편견이었다"는 그는 오히려 한복이 가볍고 않을 때도 편하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입어보기도 전에 불편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에 정군은 "우리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괴하시키고 색안경쓰고 보는 나쁜 의식들이 괴배한 것 같다"고 전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운동권' 혹은 '노래패, 율동패'로 치부하는 것이 이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래도 우리것에 대해 관심갖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더욱 입고 아끼려하는 학생들이 율동패, 노래패 친구들이어서 이런 오해가 많다"며 오히려 청천해주어야 할 일을 자기와는 다른 사람으로 배제시켜버리는 지금의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한다.

"복장에 따라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생활한복을 입으면서 더욱 차분해지고 신중해지는 것 같다"고 전하는 정군은 지난 휴일에 생활한복을 입고 인사동거리를 걸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윤홍은 기자 happyend2@hanmail.net

Q&A

생활한복? 개량한복? 제대로 된 명칭은 무엇인가

생활한복, 개량한복, 우리옷, 겨레옷, 민복 등의 여러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 어느 명칭이 이 옷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까?

'개량한복'이라는 말은 '뭐가 나빠서 고쳤다, 개량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나 생활한복의 출발점을 전통한복으로 보았을 때 그 전통한복에 비해 조금 불편할 뿐 나쁘다고 말 할 수 없다.

한편 전통한복전문점에서 전통한복에 주로 쓰는 비단 원단 등을 사용하여 약간의 변형을 주어 만든 '개량한복'이 이미 존재한다.

'우리옷', '겨레옷'은 아름다운 우리말이기는 하나 그럼 전통한복은 우리옷이 아닌가'라는 물음을 생각한다면 적당하지 않은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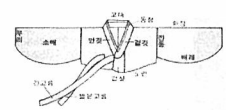
'민복'은 백성 민(民)자를 쓴 것으로 일반백성들만 입는 짧이 낮은 옷이라는 이미지로 생각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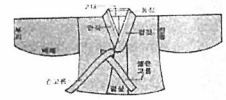
정확한 이름은 '생활속에서 편히 입는 한복'의 의미인 '생활한복'이다. 이 용어는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여, 1996년 12월 '한복입기'를 추진한 당시 문화체육부에 의해 공식용어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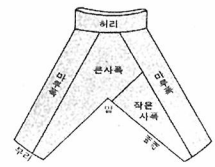
생활한복을 입으면 옷의 맵시가 나지 않는다?

근 1백년간 서양옷만을 입다보니 옷에 대한 미학 자체가 서양식으로 변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옷, 한복의 특징이자 장점은 넉넉함과 여유에 있다. 서양옷이 몸을 드러내는 옷이라면 한복은 몸을 감추는 옷이다. 서구식 미학은 노출이지만 우리의 아름다움은 보일락 말락하는 것이다.

우리옷의 맵시란 몸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복의 섶코, 버선코, 도련 자체에서 나오는 선의 아름다움이다.







쪽의 언어를 찾아서

고망년-〈13〉

옥이는 나이도 어린데 어느 고망년 때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넌 왜 또 어느 고망년때 이야기를 꺼내니?

고망년→ 알 수 없는 오랜 옛날이라는 뜻으로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과 같은 말(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고망년은 관형사인 '어느'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동문영화마당

새내기들에게 권하는 영화

"시대는 변했지만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과 절망의 무게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게 될 것"

울림 손수희
(사회·신방 00)

바보들의 행진

한국/ 105분/ 1975년
감독: 하길종

영화 '바보들의 행진'은 감각적이고 음률적인 문장으로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춘 군상의 외면적 및 내면적 풍속을 그려 청장년 독서층의 지지를 받았던 최인호 소설을 하길종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놀라운 처녀작 화수분(1972) 이후 문제감독으로 낙인 찍힌 하길종 감독은 '바보들의 행진'으로 검열과 혹평속에서 매우 대중적인, 그러나 숨돌릴 틈없이 팍팍한 당대현실을 우화적으로 녹여냈다. 그가 대중과 만났던 영화이고 그의 영화적 재능이 가장 훌륭하게 발화된 이 작품은 1970년대 유신시대의 암울한 청년문화의 모습을 3미하면서도 페이소스가 넘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3을 딱딱한 의자에서 보내야만 했던 참 행운 겪고 방금 교도소에서 탈주한 새내기들, 자유를 제대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함미선
(동학·아랍어 99)

밴디트

프랑스, 독일 합작 / 1997년
감독: 카차 폰 가르니에

bandits는 라틴어 어원으로 '금지된 자'를 의미하며 '밴디트'에서는 '열정, 반항, 자유, 순수를 꿈꾸는 자들'을 의미한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네 명의 여죄수가 우연한 계기로 '밴디트'라는 그룹을 결성한다. 사사건건 부딪치고 싸우며 연습을 하는 동안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강한 동료애를 느낀다. 그들이 자유를 향해 질주하는 아슬아슬하고, 숨가쁜 과정을 그린 것은 화려하고 통쾌하다. 구속과 규율을 상징하는 '푸른색'과 자유와 열정을 느끼게 하는 '붉은색'의 강렬한 대비, 다양한 카메라워크 편집은 영화의 생동감을 더하는 등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으로 스크린을 가득 채운 젊은 감각의 영화다.

"전쟁의 비극을 기존의 영화들처럼 단순히 많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이 영화는 전쟁영화의 진정한 세이비어(구원자)다!"

영상단 김천웅
(서양·영어 99)

세이비어(savior)

미국 / 1999년
감독: 피터 안토니제빅

1993년 보스니아, 내전의 땅에서 재현한 충격과 감동의 실화인 '세이비어'는 전쟁영화 명작 '플래툰' 스톤이 제작했다. 종교와 종족이라는 테두리로 파이를 가른 전쟁, 맹목적 증오에 가득찬 사람들과 그 증오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가감 없이 담는다. 감독 피터 안토니제빅이 세르비아 계이고, 주인공이 세르비아 용병과 세르비아 여인이지만 어느쪽에도 기울지 않고 3자 시선을 유지하는.

'세이비어'는 전쟁 참상 고발에서 한걸음 더 나가, 지구촌에서 살아남아 모진삶을 이겨가는 아기를 한가닥 희망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 주인공 사이의 인연과 삶이 하루하루 괴로움 그대로다.

"조심해! 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화면이 옆으로 쓰러지며 필름이 끊긴다. 카메라맨이 총에 맞아 죽는 이 장면, 결코 잊을 수 없다"

빛모습 이장하
(서유럽·불어 93)

칠레전투

칠레 / 1997년 / 총264분 / 흑백
감독 : 파트리시오 구즈만

세계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완전한 칠레 사회주의 민중연합정부의 살바도르 아옌데를 민중적 쿠데타 세력 피노체트에 의해 살해된다. 파트리시오 구즈만 감독이 동료 5명을 16mm 카메라와 구식 녹음기 한 대, 필름과 자연조명만으로 민중연합정권을 전복시킨 피노체트 쿠데타 당시의 생생한 공방전을 그대로 재현했다.

부르주아지의 분개(88분), 쿠데타(87분), 민중의 힘(70분) 총 3부로 구성되었으며, 다큐멘터리 역사상 개개인적인 관점 보다도 전체적인 작품. 특종, 대본이 지닌 역사적 교훈이 중요성과 그들이 세계에 영향을 세계에 남긴 영향 주목이다.

긴급인터뷰 - 동아리연합회회장 김희인(정보산업공·전자공학 97)군을 만나

"이것은 동아리인들의 자치권 문제입니다"

요즘 학생회관이 떠들석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3일(화)에 열린 임시 동아리 연합회 대표자 회의(이하 동연대표자회의).

동아리 교비지급 방식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안건으로 채택,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일괄지급 26표, 개별지급 10표, 무효 1표로 지금까지의 개별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으로 그 의견이 합의되었다. 하지만 학교측은 개별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학생들과의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동아리를 대표하는 동아리연합회장 김희인(정보산업공·전자공학 97)군을 만나 보았다.

일괄지급과 개별지급은 어떻게 다른가?

일괄 지급은 동아리연합회가 일괄적으로 동아리의 행사교비를 학생처로부터 받고, 운영위원회와 분과회의를 거쳐 각 동아리 회장들과 함께 합의를 도출해내어 그에 따라 각 동아리에 교비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반면 개별지급은 동아리 회장들이 예산안을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교직원의 심사를 받아 행사 교비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개별지급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별지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동연의 역할이 줄어든 만큼, 우리의 자치권이 봉쇄되었다.

또한 전체 교비의 총액을 알 수 없어, 학교의 지원예산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등록금이 7%가 인상된 지금의 상황에서, 교비지급도 그에 맞춰 인상되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는 교비가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개별지급하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동아리 회장들과 직원이 직접 만나 교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직원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교비가 지급되어왔다.

98년 말 일괄지급에서 개별지급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때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 당시 동연의 교비지급 분배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제기되어 개별지급으로 바뀌었다.

물론 교비지급 분배의 형평성과 투명성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형평성은 각 동아리 회장들과 진행하는 분과회의, 운영회의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투명성 또한 교비를 내준 학생처와 분배한 동연의 교비내역을 서로 공개하면 형평성과 투명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교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19일 협상에서는 분과장들과 임시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일괄지급으로 교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때 학교측은 학생들을 못 믿어서 동연에 돈을 주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측은 개별지급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계획?

구체적인 분과장들과 계속되는 임시 회의를 통해 논의 중이다. 하지만, 동연은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교비지급이 일괄지급이 되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이 싸움이 몇 몇의 동아리인들에게는 단순히 명분싸움으로 비춰 질지도 모른다. 또한 현재 교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당장 행사를 해야하는 동아리들은 다소 불편할 것이다. 동연에서 자치회비를 빌려주고는 있지만, 역부족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1000 동아리인들의 자치권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지라도 더 나은 동아리 생활을 위해 함께 했으면 좋겠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만나보기 - '잡은 손 놓지말자' 총감독 박종화씨

함께 노래하며 통일 바라보기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한사회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적표현물로 간주되던 서적과 노래가 거리에 흘러나오고, '북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말이 불순(?)하지 않게 통용되기 시작했다. '통일소녀'가 갑자기 등장해 방송과를 타고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부쩍 늘어 곳곳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졌다. 서신교환이 현실화되고 자유왕래도 멀지 않게 느껴지면서 통일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실상 삶 주변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대부분 막막한 게 사실이다. 남북 대학생 노래자랑이라도 열리면 멋지게 한 곡 뽑아야 할 텐데 HOT나 SES의 곡을 부를 것인가. 아니면 옛날 노래라며 트로트를 가르쳐 줘야 하나. 삶 속에서 통일을 고민하며 준비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제작으로 '잡은 손놓지 말자'는 음반이 나왔다. 과연 대중적인 통일노래로 어느 정도나 자리잡을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닫혀진 문이 활짝 열리듯 통일 열기가 달아오른 현반도에 모두 함께 공수 춘향이 할 새로운 노래를 안겨 준 박종화(음반 총감독)씨를 만나보았다.

음반 제작의 동기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통일을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확신을 보다 명확히 얻게 되었다. '갈 길은 간다'식의 운동가들에게 찬한 감동을 주는 노래보다는 '민족대단결'의 의의에 맞게 어린아이부터 노동자, 농민, 청년들까지 모두가 부를 수 있는 통일의 죽을 넓히는 노래가 필요함을 느꼈다. 남북해외 모든 동포들이 쉽게 익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모두가 같이 '노래를 부르며 통일로 가자'는 의도로 제작하였다.

'잡은 손 놓지 말자' 등 곡마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던데…

'잡은 손 놓지 말자'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선포하게 된 남북의 만남이 있었던 평양 순안공항에서의 감격의 순간을 표현한 노래다. 여기에서 '잡은 손'이 누구누구의 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삼자 연대가'는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남과 북, 해외의 모든 겨레가 자주적으로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3자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곡이다.

모두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어떤 게 있는지…

'소풍 갈란다'는 이미 MBC '여성시대'에서도 틀었던 곡으로 동요 풍의 노래다.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몸이지만 손에 손잡고 북녘 땅으로 소풍가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단이와 결이의 평양여행'도 마찬가지 동요인데, 단이와 결이라는 아이가 평양에 가서 자주라는 아이를 만나 친해져 광주로 돌아온 후에도 못 잊고 편지를 보내 자주가 광주로 달려왔다는 내용이다. 이는 따라 배우기 쉬운 단순한 동요지만 서신교환과 자유왕래라는 통일의 단계적 절차가 담긴 곡이다.

지금까지 꽤 많은 곡을 작사 작곡하셨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무엇인가

그 시기의 흐름에 맞는 대중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많이 담은 곡에 애착이 간다. 예전에 '투쟁의 한길로' '바쳐야 한다'가 가장 많이 불려졌던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번 음반도 남과 북, 해외 모든 겨레의 염원인 통일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진 만큼 애착이 가고 널리 불려졌으면 한다.

대학생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년에게는 모두에게나 하나 이상의 특질이 있다. 그 특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특질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주인 된 의식을 갖았으면 한다. 주인된 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자주와 통일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이런 청년들이 보다 많아질수록 미래사회가 서로 보장되고 통일의 길이 가까워 질 것이라 믿는다.

참여한 노래패- 광주지역노동자노래패협의회, 꽃다지, 마산 어린이노래단 아름나라, 우리나라, 전북여성농민노래단 청보리사랑, 희망새

문의- (02) 844-8603

테일- 5,000원/ CD- 10,000원

전대기련공동기자단

문화단신

용인

러시아 영화제 열어

러시아영화제가 오는 27일(화) 늦은 2시와 5시 30분에 러시아어과의 준비로 후북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러시아 대륙횡단 때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230여편의 비디오를 수집한 러시아어과 대륙횡단 팀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러시아영화제를 고정적으로 열 예정이다. 특히 한 달에 한편은 자막도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 첫 상영작은 '러브 오브 시베리아'.

이에 최원보(동유럽·러시아어 96)군은 "러시아영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한다.

피버스 배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농구동아리 피버스에서는 오는 27일(화)부터 3일간 여섯 번째 3대 3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선착순 16개팀이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상금도 마련되어 있다.(우승상금: 100000원/ 준우승 상금: 50000원)

이에 동아리 회장 홍철기(경상·무역 96)군은 "학우들의 체력증진과 동아리의 홍보를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연 새내기 맞이 한마당

지난 22일(목) 학생회관 앞마당에서 동아리연합회(동연)의 해오름식 및 새내기 맞이 한마당이 열렸다.

일년 사업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고사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 소개와 비나리, 한알, 탈, 마스터 피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또 학생회관 앞마당 바닥에 각자의 동아리의 이름을 새기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동연장 김희인(정보산업공·전자공학 97)군은 "2년만에 열리는 새내기 맞이 한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쁘다"고 전하며 새내기들을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새내기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AJ 두번째 게임대회 열려

비디오게임 동아리 스튜디오 AJ는 지난 21일(수)부터 삼일간 게임전시회와 게임대회를 열었다. AJ의 두 번째 게임대회인 이번 행사는 '위닝 일레븐'이라는 축구게임으로 진행됐다. "아직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면 아이들이나 하는 유치한 놀이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동아리회장 이강욱(자연·전자물리 00)군은 아직 가인준 동아리라 모든 기구를 사비로 마련하느라 힘들었다고 전했다.

서울

서대 시네마테크 '청춘'-3

오는 28일(수) 늦은 5시 30분 대학원 소극장에서 서대 시네마테끄가 열린다. 3월의 테마인 은 '청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키즈 리턴(キッズ・リターン)이 상영된다. 아쿠자와 권투선수를 꿈꾸던 두 청년의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한다는 줄거리로 '하나비', '소나티네'의 감독 기타노 다케시작품이다.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거울삼아 그린 작품으로 작품상은 물론 흥행면에서도 큰 상공을 거두었다.

더 알아보기

공연안내

2001 뮤지컬 앵콜 태풍

태풍은 세익스피어의 마지막 대작 템페스트를 뮤지컬로 각색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청산해야할 것은 무엇이고 새로운 21세기에 가지고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보여준다.

남경주, 이정화 등의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가 출연하며 한국 뮤지컬 대상, 최우수 작품상 등 7개 부문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때: 3월 30일 ~4월 6일
(월~수)7시 30분/
(금~토)3시, 7시 30분/
(공휴일)3시, 7시

곳: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입장권: VIP석 50000원/ R석 40000원/ S석 20000원/ B석 10000원

외대, 해가 지지 않는다 - ⑫ 포르투갈어

어리언어를 배우고 있는 외대. 언어를 배울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매호마다 각과 언어를 선정해 먹거리, 볼거리 등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장을 마련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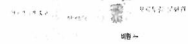
가볼만한 곳

포르투갈 문화원

포르투갈어권는 나라는 아직 우리에게 그다지 친밀감이나 낯설다. 하지만 '볼'이란 단어가 포르투갈어 이름 포르투갈문화원 또한 소리없이 우리 가까이에 있었다. 안국동에 위치한 비원 근처, 별다른 간판도 없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해 관심을 끌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이런 문화원이 밖과는 달리 문화원이 내부는 포르투갈어 자기와 악기, 인형 등이 진열되어 포르투갈에 와 있는 기분이 들게 한다. 특히, 화려한 포르투갈의 전통 타일이 내외벽을 장식하고 있다.

문화원이 위치한 3층에 있는 도서실에는 1500여권의 포르투갈 관련 서적과 500여개의 비디오 테이프, 100여장의 CD를 언제나 대여할 수 있다. 자기만 포르투갈어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 문화원에는 매해마 5월경과 12월 문화강좌도 개최한다.

어학강좌는 1년에 2학기제로 운영하며(수강료 3만원)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수업이 초·중·고급으로 운영된다. 그 밖에 코엑스에서 1년에 두 번 열리는 유학 및 어학전과 격전제로 열리는 영화제도 문화원이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 원서빌딩2층

전화: 02)3675-2282

홈페이지: http://www.portugal.or.kr

이용시간: 오전10시~오후5시30분

이빠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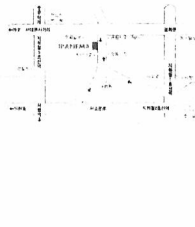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맛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브라질 요리.

하지만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츄라스카리아(브라질 대표요리)전문점을 만날 수 있다. 이 음식점의 주인이 남미 여행 중 이빠네마(브라질 리오데지로의 해변)에서 맛본 츄라스카리아를 잊지 못해 지난 98년도에 개업하게 되었다고 한다.

브라질 현지 주방장과 웨이터가 만드는 츄라스카리아. 이것은 꼬치를 꽂아 참숯에 구운 고기로 주방장과 웨이터가 직접 식탁에서 잘라주어 손님들에게 맛 이외에 보는 재미도 제공한다. 남미인들이 손님의 30%가량을 차지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기도 한 이빠네마에서는 또한 까이피리(브라질 칵테일)과 대결도 즐길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27-11
(정경빌딩 B1)

전화: 02) 779-2756~7



읽을거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M.바스콘 셀로스 / 육문사 / 4500원

초등학생 시절 누구나 한번쯤 읽어 봤음직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이 책은 단지 어린이만을 위한 책은 아니다. 마치 할 수 없는 작은 악동 제제의 이야기는 대학생이 된 지금도 변함없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작가 바스콘셀로스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꿈과 사랑을 간직한 채 성장해 가는 제제의 모습을 자신의 어린 시절에 비춰 그려냈다.

꿈의 소년 제제의 지치면 아픔들은 이야기 한 부에서 있는 이 책은 브라질에서 초등학교 감독 감의 교재로도 사용되는 브라질 국민 소설이다.

볼거리

중앙역

감독: 월터 살레스
출연: 페르난다 콘레바로, 비니시어스 올레베리라

브라질 중앙역 한구석에서 가난한고 글 모르는 사람들의 편지를 대필해주는 전직교사 노지녀 도라의 자존심이 강한 소년 조슈에.

이 둘은 어떤 점에 조슈에의 얼굴도 본적 없는 아버지를 찾아떠난다. 하지만 이 마지 못한 여행을 하며 두 사람은 자신이 잊고 있던 것을 찾아간다.

그들이 여행하며 보여주는 브라질의 구석구석의 모습도 이 영화의 볼거리중 하나다.

브라질의 국민배우 페르난다 콘레바로(도라역)과 감독 월터 살레스에게 구강하나 캐스팅된 비니시어스데 올레베리라(조슈에역)

이 둘의 연기 호흡으로 이 영화는 98년 베를린 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

여행담

99년 2월부터 1년간 언어 연수차 하우 그란지 두수주의 연방대학에 다녔다는 박성희(서양·포어 97)양.

"브라질은 항상 축복받은 자연과 음악 속에서 춤을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있는 곳"이라며 브라질을 설명한다. 카니발 축제기간에 브라질에 도착한 그녀는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브라질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인종의 섬'이라고 불리는 브라질은 오래 전부터 여러민족들과의 접촉으로 자연스러운 혼혈이 이루어져 그들만의 독특한 브라질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tres be jo(브라질 인사법)라는 신체접촉을 해야만 하는 인사법이 가장 어려웠어요"라고 전하는 박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다정함과 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개방적인 문화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브라질의 대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데, 그런 바쁜 생활 속에서도 축제나 춤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브라질 여행을 권하는 박양은 "고산지대의 위기도 있었지만, 브라질의 아름다운 해변과 carnion. 개성적인 도시들은 잊을 수 없다"며 자신의 여행이야기를 덧붙였다.

김현지 기자 yes-brown@hanmail.net

학술단신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27일(화)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제4차(통합 15차) 정기총회 열어

민언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오늘 27일(화) 늦은 7시에 프레스센터 19층 회견장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과 제4차 정기총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1부 부설 '대안TV' 1주년 기념식 △2부 제4차 정기 총회 △3부 뒷풀이 순으로 진행되며 '2001년 언론개혁 대중운동'을 공유하고 결의하자는 기치를 내건다.

민언련은 지난 1984년 창립한 후 1998년 1월에 '시민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그 해 3월 정기총회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봄학기 외국어 강좌 열어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는 지난 19일(월)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영어·일본어·중국어·리틴 댄스 등의 외국어와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2개 강좌 동시등록(4주)시, 또는 1개 강좌 1.2차 동시 등록(8주)시 수강료 10% 할인도 계획하고 있다.

단, 영어회화/일본어/중국어 강좌는 각 반별 8명, 영어창취/TOEIC/라틴댄스 강좌는 각 반별 12명 미달시 강좌개설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 및 접수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사무국 031-330-4803~5

가 세계를 돌아보게 바라보는 힘

라사니

아미티지 보고서

공식적으로 정부는 "페리 보고서가 이미 아미티지 보고서를 반영해 만들어졌다"며 "이를 벗어나는 대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2000년 2월 27일자 한겨레 신문)

장관급 회담의 연기로 북-미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94년 '페리 보고서'의 대안격으로 나왔다는 아미티지 보고서는 이런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한반도 전문가인 아미티지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수출을 저지하기 위해 해상봉쇄 등 강경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온 인물이다. 아미티지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강화 조처로 '미-일 안보동맹의 중요성'과 '한-미-일 국방장관협의회' 등 3국의 군사전략적 동맹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핵·미사일 이외에 상호 재래식무기 감축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해 핵 의혹 해소, 미사일 개발과 수출 금지, 재래식 무기 감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경우 식량지원, 국제금융기구 지원, 관계개선을 하되 이를 거부하면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것이다.

보도 - 북한의 소프트웨어 발달 현황

북한 소프트웨어, 세계적 반열에 오르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이 세계적인 반열 위에 올라서고 있다.

지난 16일(금)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전시된 의학 소프트웨어 '금빛말 3.0'을 비롯, '묘향산 바둑' '규경 장기' 악보편집 프로그램 '은방울' 등 국내 기업을 통해 수입된 북한 소프트웨어들이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금빛말 3.0'은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접목시켜 직접 체질 진단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컴퓨터에 달린 지문입력기에 지문을 입력하고 손가락 끝 경혈에 측정도자를 대면 컴퓨터가 이를 인식해 피검자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중 하나로 분류하고 몸상태를 진단해 준다.

금빛말은 이를 통해 △병적 징후 △심리적 특징 △주의해야 할 질병 △보약 및 침처방 등을 알려준다. 대북교역업체 주영수 회장은 "이 소프트웨어는 임상실험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기술력이 우수하다"며 "한의학의 발달정도가 상당한 수준인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남한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하나넷을 통해 다운로드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묘향산 바둑' 또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다. "국내에서 선보인 컴퓨터와 사람이 대국하는 바둑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나은 프로그램이다"는 것이 게시판에 올라 있는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반응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이 뛰어나 수읽기가 탁월하고 대국 상대방의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대국을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한다.

그 외 북한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로는 조선컴퓨터센터가 개발한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한글 문서편집 프로그램 창덕 6판, 윈도 2000년용 문서편집 프로그램 단군 5.0 등이 있다.

현재 북한은 조선컴퓨터센터를 비롯해 평양프로그램센터, 과학원 수학연구소, 은별컴퓨터센터, 김일성종합대학 산하 컴퓨터과학대학 등에서 인력양성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박인근(남북경협팀 팀장)씨는 "프로그램의 개발여부가 이윤에 의해 좌우되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주도의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고 전한다.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컴퓨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김 총비서는 지난 93년부터 컴퓨터 관련 기관들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지난 95년에는 과학원을 방문해 외국 컴퓨터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문서적을 각 연구기관에 보급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90년부터 해마다 평양에서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과학중시 사상'을 강조한 지난해에는 '제1차 전국대학생프로그램 경연'(11월), '전국 고등중학교 학생 컴퓨터프로그램 경연 및 타자경연'(11월)을 진행하는 등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지문인식 프로그램'은 지난 99년 중국에서 열린 세계컴퓨터박람회에 출품돼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렇듯 이제 막 물꼬를 튼 정보통신분야 교류에서 남한은 북한의 우수한 IT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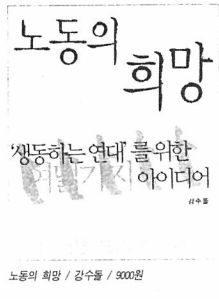
북한 또한 남한으로부터의 기술이전과 외화획득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해 온 중원기업, 오파홀 닷컴, 삼성전자 등도 북한의 기술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상대적으로 기술이 발달된 인식분야(생체·음성·문자 등)와 다국어 번역분야의 프로그램을 반입하거나 공동 개발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처럼 앞으로는 남북간 정보통신 분야 교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소프트웨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부

이 책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노동의 희망 / 강수돌 / 9000원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 대 노동 환경에서 노동은 자본의 운동 과정 속에 편입되었다. 노동은 '거대한 기계 속의 일개 톱니바퀴'로 작동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진행될수록 노동조합의 힘은 미약해지고 있다. 1989년 말 193만 명이던 노동조합 조합원은 98년 말 140만 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97년 말 이후 IMF 경제관리체제 1년 동안에 노동조합은 846개가 줄었고 조합원은 15만 명이 빠져나갔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듯 보이는 신자유주의의 물결 앞에 개별화된 노동운동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노동의 권익은 "자본과 국가의 위기"이데올로기 앞에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러한 '노동의 위기'의 원인으로 억압적 정치 체제, 노동 배제적 경영합리화나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 등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수돌 교수는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과 그 극복을 위한 실마리는 노동주체 내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1년여 동안 2년 반 분량의 국내 5개 노동월간지를 중심으로 현장노동자들의 글을 집중 분석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서 200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2년여에 걸친 노동의 위기와 극복에 관련된 글을 집중 분석하여 나름의 시각으로 재구성해낸다. 경제위기 이후 변화한 노동운동의 조건과 상황을 '현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그 극복의 방안도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추출해 제시한다.

노동운동에 관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는 대신, '노동조합'이라는 구체적인 의제를 설정하여 자신의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노동현장이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가 다른 노동계층을 배제하고 있으며 △양보교섭과 직권조인 관행이 현장 권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불참저한 조합민주주의가 지도력을 흔들고 있으며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노동운동 이념의 위기 등 '네 가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위기는 '지배논리와 자본논리', 즉 경쟁체제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절대시하는 논리의 '내면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노동의 주체적 저항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 이 위기의 해결책으로 강 교수가 제시하는 것이 '생동하는 연대'의 구축이다.

생동하는 연대는 노동을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간의 실질적인 연대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조직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 국내 노동자와 세계 노동자들이 연대를 통해 '더 큰 자아'로 통합돼야 한다는 말이다. 강 교수는 생동하는 연대로 가기 위해 다음 여덟 가지를 구체적 경로로 제안한다.

△따뜻한 조직을 만들자 △현장 토론을 일상화하자 △독자적 자율 역량을 강화하자 △지도부에 기대지 말고 기층이 지도부를 움직이자 △작지만 아름다운 풀뿌리 연대를 강화하자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자 △운동 내부의 계급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운동의 비전을 공유하자 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그리고 그 도전은 노동주체들의 의식과 행동에 배어 있는 지배논리에 대한 도전이다. 이 책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명제를 재확인시켜 준다.

류지훈 기자 kickbutt@orgio.net

'고객'의 말뜻은?

○… 얼마 전 용인배움터 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총장은 "학생은 제 1의 고객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이에 우리 크로니클자 이를 보고, "고객? 고액 등록금 내고 대우받지 못해도, 객석에 앉아 불만 없이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kang〉

○… 그 동안 개발적으로 지급해오던 교비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괄지급으로 전환해달라는 동연측의 요구에 학생처는 "학생들을 못 믿어서 그렇게 못하겠다!"는데...

그럼 우리도 "학교 못 믿어서 등록금 못 내겠다!"

〈환동〉

○… 북한이 다른 국가에 무기 판다고 딴지 거는 미국. 세계 무기수출 1위의 자리를 당당히 꿰차고 있는 미국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에 우리 크로니클자 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고 있네"

〈훈〉

○… 서울여대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의 18%만이 학교의 주체라고 답해 학생들 스스로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본 크로니클자 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반다더니, 등록금은 학생이 내고 주인은 따로 있구나"

〈희〉

○… 지난 26일(월) 정부는 3·26 개각을 단행했다. 그 밥에 그 나물일 것이라는 점은 미리 예측 못 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물의를 빚고 물러난 사람까지도 또다시 발탁했다는 점은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는 의견이 괭배하다.

이에 개각에 맞춰 때마침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오는 데… "개각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뻔뻔했던 그 사람"

〈흥〉

뻔뻔한 사람

비둘기 칠판

왕산골

□ 알립니다

취업대표간담회
2001학년도 취업대표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과 취업대표 및 관심있는 4학년 학우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4월 2일 늦은 5시 40분
장소 : 도서관 3층 세미나실

〈제 15대 졸업준비 위원회〉

대학생활의 젊음과 패기를 함께할 01학번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학생회관 지하 B 10호 http://hufscheer.zoa.to

〈HUFS cheer leaders〉

규영오빠, 늦었지만 생일 많이 축하해.

〈수경〉

효민아! 너도 생일 축하한다

〈현지〉

책읽는 즐거움이 있는 곳, 토론의 진지함이 있는 곳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고 사람의 온기를 나누는 곳
평화 문제 연구회 민들레 영토입니다.
학생회관 406호

〈민들레 영토〉

연극을 하고 싶으신 분,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
나를찾고 싶으신 분, 중앙연극 동아리 연결이 있습니다.
학생회관 402호, 구내전화 4438

〈연극동아리 연결〉

기타를 배우고 싶으신 분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을 느끼고 싶으신 분
기타를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학생회관 417호 한시울로 오십시요.
구내전화 4412

〈클래식 기타동아리 한시울〉

이문벌

아르바이트 모집합니다.
할 일 : 교내 전단 작업
보수 : 월 20만원
시간 : 본인 편한시간
연락처 : 011-577-2985

〈아르바이트 구함〉

한영외고 동문회 합니다.
일시 : 3월 30일(금) 5시
장소 : 대학원 건물(6건물) 로비
9기는 무료입니다.
문의 : www.freechal.com/hufshy 016-273-6402

〈한영외고 동문회〉

사범대 율동패 한발짝 새내기·한내기 모두 모집합니다.
연락처 : 016-632-4716

〈사범대 율동패 한발짝〉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정기모임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파탄 누구탓인가?'
일시 : 3월 27일(화) 오후 6시
장소 : 1604

〈민주노동당 학생그룹 외대·광운지부〉

외대 연극회 오디션 있습니다.
일시 : 3월 27일(화) 오후 6시
장소 : 1건물 2층 대강당

〈외대 연극회〉

학생복지위원회 여학 특강이 학생들의 신청불 저조로 연기되었습니다.
날짜 변경 : 3월 26일(월)→4월 29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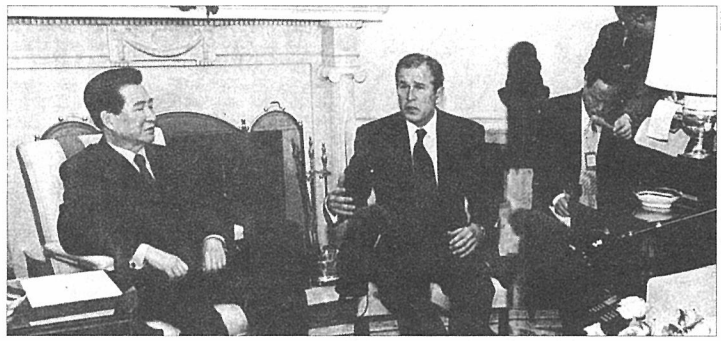
〈학생복지위원회〉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1)330-4112, 4500

부시 행정부의 출현과 조국통일운동의 방향

북-미간 첨예한 대립상황 예견돼…

NMD · TMD 반대 및 반전평화운동 필요, 외세의존 배격해야



Reuter

부시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힘과 권위를 강조하며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결과 긴장의 찬바람을 몰아 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 NMD,TMD 계획이다.

NMD,TMD는 미국 본토 또는 해외 미군 기지에 도달하는 미사일을 요격하여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뜻 보면 방어적인 듯한 위 계획이 갖고 있는 위험성은 이런 것이다. 미소간의 핵 무기 경쟁 당시 전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다량의 핵무기를 양국이 갖고 있었음에도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양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의 엄청한 파괴력 때문이었다.

가령 소련이 미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하더라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모두를 파괴하지 못하는 한 파괴를 모면한 핵무기가 소련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 때문에 어느 쪽도 선제 공격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NMD, TMD는 미소간의 위와 같은 현실을 뿌리로부터 뒤엎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선제 핵공격을 가한 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날아 오는 핵무기를 미국 본토밖에서 요격할 수 있다면 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NMD, TMD가 갖고 있는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마저 심각한 우려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세계 전략은 대북 정책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강압적인 대북 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두가지이다.

첫째는 북미간의 참예한 대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다. 사실상 90년대 전 기간 북미간에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결 양상이 계속되어 왔다. 90년대말에 접어 들어 전쟁 발발시 양국이 입게 될 상상을 초월하는 참화 때문에 양국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던 것이다.(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악몽처럼 남아 있는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군의 숫자는 5만 8천명 정도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체로 10만명의 미군이 사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90년대 북미간 대화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당 기간 북미간에 참예한 긴장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둘째는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과 한국의 대미 종속의 심화 가능성이다.

최근 급속한 남북 관계의 진전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갖는 패권적 지위가 흔들릴 것에 대해 우려한 부시 행정부는 남북간의 대화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불행히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3월 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굴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차세대 전투기 등 미국의 무기 구입 강요와 통상 압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다시금 반목과 대결의 상황으로 후퇴하는 것은 물론 극우보수 수구 세력이 전면에 부상하여 살벌한 공안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조국통일운동의 방향은 첫째,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을 확대, 강화하여 부시가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긴장 고조 책동과 내정 간섭을 막아 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화해하며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이 허심탄회하게 민족의 운명을 놓고 대화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둘째, NMD, TMD 및 미국의 무기 구매 강요 등에 대해 반전 평화 운동, 반미 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야 한다. 지금 시기에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막지 못하면 조국통일은 요원한 것이다. 강력한 대중운동을 통해 동요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가 외세 의존이 아닌 남과 북이 공존하는 길로 들어서도록 강제해야 한다.

현 정세는 전쟁 전야와 첨예한 대결을 임태하고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다.

만약 6.15 선언으로 조성된 조국통일 국면이 무너진다면 94년 정상회담 합의 이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조성되었던 남북간의 대치, 공안정국을 훨씬 뛰어 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협소한 개인적 이해를 뛰어 넘어 평화와 통일의 이름 아래 7천만 민족 모두가 단합해야 한다.

민경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

사회단신

평화인권연대 등 8개 단체, 경찰 수사방침 비판공동성명 발표

지난 20일(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병역기피사이트' 수사방침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민족화해자주통일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평화인권연대 등 8개 단체가 지난 22일(목)자로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병역거부와 관련된 논의를 인권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며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 밝히며 △경찰의 강제 수사 입장 철회 △징병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및 행동의 자유 보장 △징병제 논의 자체를 막는 형법 114조 2항 개정 △징병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국회의 논의 시작을 주장했다.

서총련, 한 · 미 · 일 3자 공조 협의 반대 기습시위 벌여

지난 26일(월) 조선호텔에서 미국 부시정권 출범후 처음으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일 3자협의회(TCM)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호텔정문에서는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소속 학생 2명이 '미국 · 일본은 한반도 내정간섭 중단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호텔 정문에서 5분간 침묵시위를 벌이던 경희대 류호정(97), 홍익대 김동호(99)군이 호텔 직원들의 저지로 차도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 도로에 주저앉은 채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동호군은 "한미일 공조체제는 단지 이북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고 시위함가 동기를 밝혔다. 또한 서총련은 성명서를 내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1항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민족의 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이 땅을 나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권시평

더 이상 국민을 계도하려 들지마라

"신고하는 국민정신, 사라지는 좌익사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입간판! 또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곳곳에서, 현란한 광고들 사이사이로 "신고정신"이라는 네 글자가 뚜렷이 보이기도 한다. 소위 이념계도간판 및 포스터는 너무도 흔해, 미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곳곳에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지조차 의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대한민국의 이념계도활동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존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훈령 제25호 이념계도활동규칙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들은 북한과 좌익폭력세력의 파괴적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국민 계도체계의 재정비 및 강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청은 모든 경찰관 뿐만 아니라 고정신고망 · 특별신고망 등을 이용한 '주민신고 조직요원' 그리고 통 · 리, 직장, 부녀계도요원 등 '지역 · 직장신고 계도요원'을 소위 이념계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계도요원에는 '택시 · 버스기사, 이 · 미용업소 종사자, 사찰관리인, 우편집배원' 등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특수직업종사자들이 포함되어, 대한민국 국민이 이념계도를 위한 경찰청의 촘촘한 그물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벽 · 오지, 공단주변, 대학가 하숙촌, 영세민 마을 등을 이념계도 취약지로까지 선정해 집중적으로 이념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계도활동의 실적과 분석내용은 월간, 분기간, 연간으로 종합되어 경찰청장에게 보고된다.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과 사상은 아예 발본색원하여 철저히 감시 · 관리하겠다는, 가히 무시무시하고 전방위적인 이념계도체계라 할 수 있다.

계도(啓導)란 계발(啓發)하고 지도(指導)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계도라는 단어에는 계도의 내용이 올바르다는 '독선'과 자신들이 국민의 이념을 교화해야 한다는 '오만'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말하는 계도의 내용이란, 북한을 일방적으로 적대시하고 국가에 반대하는 사상을 지독히 혐호하는 냉전적 사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한국자유총연맹 등과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을 실시한다고 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한편 우리는 국민의 이념이 과연 경찰청의 계도 대상인가 하는 물음을 던진다. 국민은 자신의 이념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념계도활동이 계속되는 한, 국민들은 이러한 선택권을 애초부터 박탈당하고 그 능력에 대해 계속해서 무시당할 것이다. 이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이며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념계도활동규칙이라는 시대역행적 훈령을 즉각 폐지하고, 국민을 계도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범 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그 · 림 · 타 · 래 〈16〉

정현도 기자

외국어연수생 모집
(이달 10주과정 모집)

▣ 모집과정 및 학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서반아어, 노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네덜란드어, 스칸디나비아어, 헝가리어, 우크라이어, 세르어, 힌디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한국어, 베트남어 인도어 터키어, 이란어, 아프리카어(총21개어)

▣ 교육기간 및 시간

과 정 명	교 육 기 간	수업시간	수업요일
대학생과정	2001. 4.16 ~ 6.22. 10주	17:40~19:30	주 4일 (월,화,목,금)

▣ 지원절차 및 원서
원서교부 및 접수처 : 2001. 3.30.(금)까지 선착순
외국어연수평가원(전화/FAX/인터넷으로 접수가능)
제출서류 : 수강원서(본원 소정양식), 사진1매(반명함판), 등록금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 자격 제한 없음 (타 대학생도 지원 가능)

▣ 반편성시험(Level Test)
일시 및 장소 : 2001. 4.7(토) 대학생 14:0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발 표 : 2001. 4.11(수) 14:00 본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전화문의 가능)
◀ 각 해당 언어별로 Level Test (외국인과 1:1인터뷰)를 실시한다

▣ 등록금 납부기간 및 장소
2001. 3.12(월) ~ 3.30(금), 외국어연수평가원 수납 및 환불
본행으로 무통장 송금시 본인 명의로 입금(타인명의 입금시 확인전화 요함)
제일은행 외대지점 132-10-000154, 한국외국어대학교

▣ 기 타
교육기간 도서관 및 시청각교육원(언어실습실) 등 교내시설 이용가능
인터넷 안내 및 접수방법 : http://www.hufs.ac.kr
※ 외국어연수평가원 연구실 : 2층 (원서접수)
문의처 : ☎ 961-4174/5, 962-7119, FAX : 962-057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정규과정 수시 접수중(외국인 및 해외교포대상)

외국어연수평가원

2002년 학군사관 후보생(ROTC)모집

1. 모집인원 : 00명
2. 지원자격
- 제3학년 전학이 2년안으로 가능하고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임관년월(2004. 3. 1)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군면사법 제10조 장교 임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2001. 3. 5(월) ~ 5. 12(토)

♣ 기타 구비서류 및 문의사항
전화 : 서울 (02) 961-4411, 4412, 용인 (031) 330-4149
인터넷 : http://maincc.hufs.ac.kr/~ROTC

2001년 군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 1학년(00명), 2학년(00명)
2. 지원자격
- 임관일 기준 만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1학년(3년제) : '78. 10. 1 ~ 85. 9. 31 출생자
2학년(3년제) : '77. 10. 1 ~ 84. 9. 31 출생자
- 신체검사 결과 3급 이내인 자
-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2학년) : 1학년 학기별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 친권자의 동의서와 제정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 2001. 3. 2(금) ~ 4. 7(토)

♣ 기타 구비서류 및 문의사항
전화 : 서울 (02) 961-4411, 4412, 용인 (031) 330-4149
인터넷 : http://maincc.hufs.ac.kr/~ROTC

아르바이트 지원서 접수 안내

2001학년도 제1학기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사회경험 및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아 래

1. 접수기간 : 학기중 수시접수
2.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 학생처 (☎ 4035)
3. 대상 : 전학년 학생
4. 지원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추천 우선권이 주어짐

2001. 3. 27

서울캠퍼스 학생처장

제 3기 외대새로미 (홍보모델, 입시홍보도우미)모집

학교 홍보를 위해 1999년부터 선발한 "외대새로미"는 한국외대를 대표하는 장래의 홍보전령사입니다.

외대새로미는 전국의 고교생을 위한 뉴스레터인"외대소식"등의 학교홍보물의 제작물 모델과 기사원제, 입시상담, 대학입시박람회, 고교방문입시홍보만들에서 입시홍보도우미로 활동하게 됩니다.

외대만의 Unique한 자랑거리를 고딩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홍보할 열정있고 당찬 새로미를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서울 용인 캠퍼스 재학생(휴학생도 가능)
◆선발인원: ①홍보모델: 6명 내외
②홍보도우미: 6명 내외
◆지원서 접수기간: 3월 20일(화) ~ 29일(목) 17:00
◆지원서 배부: 홈페이지 Download, 서울캠퍼스 입학처, 용인캠퍼스 교무과
◆지원서 접수처: 서울캠퍼스 입학처, 용인캠퍼스 교무과
◆선발일시: ①홍보모델(공개심사): 3월 31일(토) 10:30
②홍보도우미(면 접): 3월 30일(금) 17:30

*자세한 사항은 입학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02-961-4473, 4472로 연락 바랍니다.
*최종 선발자 외대새로미는 학기당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교 무 처 장

예비군 대원 신청 안내

2001학년도 1학기 대학직장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등록금 납입 후 (복학자) 다음과 같이 대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전입신고
가. 대 상 : 복학, 편입학, 재입학, 입학, 복수전공자, 학부에서 대학원 진학자
나. 구비서류 : 예비군 방침보유원서(미상계획관실 비치),
학적변동 신고서(학적과 및 각 대학원 교학과 발행)
등록금 납입 영수증(신입생 및 편학 복학자는 제외)
※ 2001년도 전역자와 타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자는 비상계획관실로 대원신청 전에 문의

2. 전출신고
가. 대 상 : 휴학, 자퇴, 제적, 졸업자(일반 직장대 편성 대상자)
나. 구비서류 : 학적변동 신고서(학적과 및 각 대학원 교학과 발행)

3. 신청장소
서울 캠퍼스 비상계획관실(학생회관 1층) 02-961-4145,4146
용인 캠퍼스 비상계획관실(정보산업관 1층) 031-330-4111,4119

※ 기타 문의사항
▣ 우리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진학한 학생은 필히 신청 바람.
▣ 군입대 휴학자 및 면방학 대상자는 신청 대상이 아님.

2001. 3. 27

서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 장
용인캠퍼스 직장예비군연대 장

러시아 대륙횡단기 -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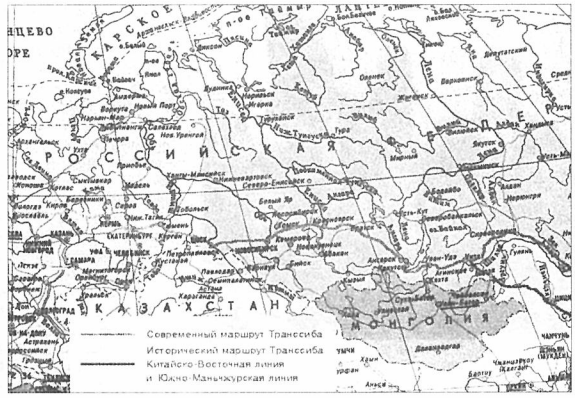
"영하 20도의 추위속에도 땀이 배어 있었다"

지난 겨울방학 기간 용인배움터 러시아어과 회원보(서유럽·러시아어 96)의 4명의 학생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러시아대륙을 횡단했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들의 러시아 기행을 2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시베리아 횡단도시 목록

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울란우데→이르쿠츠크→끄라스너야르스크→노보시비리스크→예까쩨린부르그→모스크비→쌍뜨베쩨르부르그→모스크바



12월 29일

광활한 대지 러시아에 우리는 첫발을 내딛었다. 말로만 들던 시베리아의 추위와는 달리 블라디보스톡은 그다지 춥지 않아서 우리는 '러시아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였다. 첫날에는 도착의 피곤함에 간단히 도시를 훑어보듯 돌아보고 우리는 숙소에서 내일의 계획을 잡으면서 잠을 청했다.

12월 30일

숙소는 편하였으나 이국땅이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설쳐서인지 피로를 다 풀지는 못한 채 나른한 몸으로 잠이 깼다. '드디어 시작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먼저 숙소 앞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의 진풍경, 얼어 붙어있는 바다에 나갔다. 끝이 없이 하얗게 얼어붙은 바다. 자연의 숙연함에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또 하나의 진풍경을 보게 되었다. 얼어붙은 바다 위에 개미의 행렬처럼 낚시를 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것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우리는 그 이색적인 광경을 추억에 담기 위해 사람들에게 접근하였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먼 동족에서 온 낯선 사람이라는 생각 보다는 자신들의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영하 16도 정도에 초속 10미터의 바람이 전날과는 달리 살을 에는 듯했지만, 잠시나마 함께 낚시를 하며, 서로의 교감 속에 오가는 따스한 차와 흰 빵, 연어튀김, 보드카 등이 추위를 잊게 하였다. 이런 일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아쉬움 속에 횡단팀의 첫날은 가고 있었다.

12월 31일

추위가 방을 감싸고 돌았던 탓에 우리는 빠근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다. 오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카메라를 들고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유럽의 건물 형태와 동양의 건물 형태가 뒤섞여있는 러시아의 건물들과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고인의 생가들, 박물관 등은 우리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모든 것이 신기하여 동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된 느낌이었다. 정말 하루가 짧다는 것이 아쉬왔다. 그러나 찬란한 태양이 가면서 저녁을 물들일 때, 눈 앞에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새해라는 일년의 시작행사를 하기 위해 모두가 중앙광장으로 몰려들었고 우리는 군중의 흥분에 휘감겨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바람이 귀를 잘라갈 듯 불고 있었지만 그들은 추위는 아랑곳 않고 자연이 만들어낸 얼음미끄럼틀에서 세대없이 즐기고, 술을 마시며 새해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정말로 외국 땅에서 눈물이 날만큼 고마운 일이었다. 12시의 종이 울릴 때 광장은 흥분에서 광적인 분위기로 바뀌었고 터뜨려지는 폭죽과 구수한 러시아인의 노래 소리에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함께 술을 마셨다. 어느새 우리는 추위를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쉬웠지만 우리는 다음날 이라는 또다른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여기서 즐거움을 접어야만 했다.

1월 2일(하바롭스크 도착)
1월 3일

하바롭스크는 좀 시골같은 도시의 느낌이었다. 블라디보스톡에 비하여 한인이나 동양인이 상당히 적었으며 고요했다.

이곳의 사람들도 추위를 즐겼다. 중앙광장 옆 조용한 공원에서 많은 재래식 놀이와 얼음미끄럼틀 그리고 맛좋은 샤슬릭(꼬치구이)과 보드카 등은 지금까지 여정의 피로를 씻게 하고 시베리아를 한층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는 것만 같았다. 건물을 찍고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밤에 우리는 중앙광장에 얼음조각을 보기 위해 나갔다. '와~!'라는 감탄사 말고는 아무 말도 필요치 않았다. 광장의 얼음조각들은 별천지를 보는 듯 했다. 얼음의 성벽, 나비모양의 천사, 얼음거울 등 모든 것 하나하나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고 무언지 모를 복받침을 이끌었다.

1월 5일

우리는 하바롭스크의 많은 것을 보고 나서 이제는 가장 유명한 아무르강을 횡단하는 거대 프로젝트에 들입했다. 처음에 바라본 강은 앞에 육지가 있어 한강정도의 폭으로 보였다. 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얼어붙은 강위에서 장난도 치고 사진도 찍고 즐겁게 강을 건넜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육지라고 생각하고 도착한 곳은 작은 섬에 불과했다. 우리는 횡단의 꿈을 접지 않고, 걷고 또 걸었다. 쌓인 눈 위를 걷는다는 것이 발이 빠져서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서 인지 신기하게도 피로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렇게 또 한번 우리는 육지에 도달하였으나 그 곳 역시 섬이란 주민의 말에 '이제는 걷는 것만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도 없이 걸었다. 약 1시간 20분 및 개의 섬을 지나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마지막이란 느낌이 들었고 우리는 육지에 발을 내딛었다. 안도의 한숨~! 그곳은 육지였다. 우리는 성공의 뿌듯함에 탄성을 내질렀다. 무거운 옷에는 영하 20도 정도의 추위에 땀이 배어있었다.

이제는 해가 지고 돌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우리는 횡단의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어 온 길이 너무 멀다고 느껴져 우리는 멀리 보이는 빛을 향해 일직선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였다. 우리는 얼음과 눈뿐인 강의 들판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보이는 불빛만을 따라갔다. 그런데 갈수록 불빛은 멀어져만 갔다. 횡단하는데 걸린 시간의 두 배를 가도 강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모두가 지쳐 가고 있는 중, 우리가 지나쳐 온 듯한 섬 중 하나가 보였고 우리는 얼음위로 걸으면 많은 눈으로 인해 지쳤까봐 그곳으로 올라가 걷기 시작했다. 그곳은 다치(주말별장)가 있는 섬이었다. 우리는 숲과 넘물을 헤치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걸었다. 한 4시간쯤 걸었을까(정확히 얼마나 걸었는지는 모른다) 우리는 무언가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 우리는 감을 어느 정도 따라 걷고 있었던 것이다. 오관을 앞이낸 우리는 길을 수정하여 다시 끝도 없이 걸었다. 대원 중 하나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서로를 부추기며 희망만을 가지고 걸었다.

다시 얼마를 걸었는지도 모를 무렵, 불빛은 코앞에 와 있었고 너무도 기뻐서 탄성을 질렀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그냥 서로의 안도감만을 간직한 육지를 향해서 걸었고 숙소에서 횡단의 조그마한 이야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다.

이정길
(서유럽·러시아어 99)

아곳에 있으면 항상 비가 내립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따뜻한 봄날씨에도 불구하고...이 빗줄기는 너무 굵어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내리는 빗물에 씻겨 없어져 버리라는 듯 그 놈의 빗줄기는 질리도록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곳은 따뜻하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창살 안에 갇혀 있는 6명의 제 친구들이 몹시 추울 거예요…"바로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궂은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배움터 국가보안법 철폐 감옥시위에서

외대언론은 이제 우리가 책임진다

외대학보사

이시현(서양·독일어)
김종원(전자산업공·전자정보)
김민경(서유럽·이태리어)
김천열(서양·독일어)
이승종(정·행계열)
권정우(서양·불어)
장효민(서양·독일어)
양창모(동유럽·폴란드어)

교지편집위원회

합격자 발표는
오는 28일(수)에 최종적으로
공고합니다.

The Argus

안희연(동학·아랍어)
김상민(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
이덕현(인문학부)
강한아(서유럽·서반아어)
백한나(동유럽·루마니아어)
오은혁(경상·경제학)
하경환(서유럽·영어)
이소정(사범·한국어교육)
양주영(사회·신방)
민소영(서양·불어)

FBS(사범)

유현우(서양·독일어)
홍석룡(법·법학)
김아나(서양·불어)
이세경(서양·서반아어)
권미란(사범·한국어교육)
송현주(사범·한국어교육)
이진영(동양·중국어)
허승연(동양·태국어)
주동희(서양·불어)
전현영(사범·불어교육)

FBS(용인)

최성근(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
이한나(동유럽·헝가리어)
이현경(서유럽·불어)
박혜민(동유럽·러시아어)
윤상윤(컴퓨터 및 정보통신공학부)
신지석(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김소윤(서유럽·독일어)
김영은(서유럽·서반아어)
조민기(서유럽·불어)
이현수(전자물리화학부)
민혜민(동학·중국어)
김명주(동유럽·유고어)

조국과 언론의 자주시대를 열어가는 13대 언론협의회